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KLI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KLI
한국노동연구원

◀ 집 필 진 ▶

-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펴내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어 왔고, 그중 임시・일용직의 증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의 현황 및 추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자료집에서는 시계열 변화에 더하여 근로형태별로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는 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관련 노동통계를 정리・가공 및 분석하는 책임을 맡은 김복순 책임연구원과 정현상 연구원,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정철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통계자료집이 정책 담당자, 학자, 노사의 현장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자료집의 구성과 발간에 대해 많은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학술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인 재

목 차

Ⅰ. 개 요 ····· 1

Ⅱ.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 4

〈표 Ⅱ-1〉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 4
〈표 Ⅱ-2〉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 5
〈표 Ⅱ-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 6
〈표 Ⅱ-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 7

Ⅲ.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 8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 8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 17

〈표 Ⅲ-1〉 근로형태별·성별 구성(2014년 8월) ····· 8
〈표 Ⅲ-2〉 성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 10
〈표 Ⅲ-3〉 근로형태별 학력 구성(2014년 8월) ····· 11
〈표 Ⅲ-4〉 학력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 13
〈표 Ⅲ-5〉 근로형태별 연령 구성(2014년 8월) ····· 15
〈표 Ⅲ-6〉 연령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 18
〈표 Ⅲ-7〉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2014년 8월) ····· 19
〈표 Ⅲ-8〉 산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4년) ····· 21
〈표 Ⅲ-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
(2004년→2014년) ····· 22
〈표 Ⅲ-10〉 근로형태별 직업 분포(2014년 8월) ····· 24
〈표 Ⅲ-11〉 직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4년) ····· 25

〈표 Ⅲ-12〉 근로형태별 사업체규모 분포(2014년 8월) ····· 26
〈표 Ⅲ-13〉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 27
〈표 Ⅲ-14〉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분포(2014년 8월) ···· 28
〈표 Ⅲ-15〉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 30

[그림 Ⅲ-1] 교육수준별·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 12
[그림 Ⅲ-2] 5세 단위 구간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 16

Ⅳ.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 31

1. 임 금 ····· 31
2. 근로시간 ····· 34
3. 근속기간 ····· 35

〈표 Ⅳ-1〉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
(8월 기준, 정규직=100) ····· 32
〈표 Ⅳ-2〉 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8월 기준, 정규직=100) ····· 33
〈표 Ⅳ-3〉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평균 주당근로시간 추이 ····· 34
〈표 Ⅳ-4〉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 35
〈표 Ⅳ-5〉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4년 8월 기준) ····· 36

Ⅴ. 비정규직의 복지 ····· 37

1. 사회보험 ····· 37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 39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 44

〈표 Ⅴ-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 37
〈표 Ⅴ-2〉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 38
〈표 Ⅴ-3〉 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 39

〈표 Ⅴ-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 40
〈표 Ⅴ-5〉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 41
〈표 Ⅴ-6〉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 42
〈표 Ⅴ-7〉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 43
〈표 Ⅴ-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 추이 ····· 45
〈표 Ⅴ-9〉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 46

Ⅵ.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 47

〈표 Ⅵ-1〉 근로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4년 8월) ····· 48
〈표 Ⅵ-2〉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 49

Ⅶ.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 50

〈표 Ⅶ-1〉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 50
〈표 Ⅶ-2〉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 51
〈표 Ⅶ-3〉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 52
〈표 Ⅶ-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 53

부 표 ····· 55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 56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58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60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62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64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66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
(8월 기준) ····· 68
〈부표 8〉 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70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 72
〈부표 10〉 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 74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 76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78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 80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 82
〈부표 1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 84

Ⅰ. 개 요

○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

○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로 정의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 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됨.
- 이하에서는 '비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반복갱신'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기대불가'로 구분함.
  -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복갱신'에 해당됨.
  - 또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현재 하는 업무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들이 '기대불가'에 해당됨.

○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로 구분됨.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함.
-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청소용역, 경비용역 등)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파견근로자로, 용역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용역근로자로 분류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형태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됨.
- 가정 내 근로자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정 내 근로자로 분류되며,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가정에서’라고 응답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음.

– 일일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일일근로자에 해당되며,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이 이에 해당됨.

○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공식 통계조사는 2002년부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매년 8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3월에도 같은 조사를 수행함.

○ 3월과 8월은 계절적 특징이 다르므로 본 자료집에서는 8월 조사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까지 비정규직 추이를 정리할 것임.

Ⅱ.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33.8%까지 하락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8월 34.9%로 상승하였으며, 2014년 8월 현재 32.4%를 기록하였음(표 Ⅱ-1 참조).

-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에서 2014년 8월 18.7%로 감소했고, 비전형 근로의 경우 2004년 8월 13.4%에 비해 2014년 8월 11.2%로 감소했으며, 시간제 근로는 동기간 꾸준히 증가함.

<표 Ⅱ-1>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5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 8	18,776	12,699 (67.6)	6,077 (32.4)	3,507 (18.7)	2,112 (11.2)	2,032 (10.8)

주 : 1)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비정규직 전체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한시적 근로를 세분해 보면, 기간제 비중은 200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18.2%를 차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2014년 8월 14.6%까지 비중이 감소하였음(표 Ⅱ-2 참조).

- 비기간제 근로 중 반복갱신은 2004년 8월 4.0%가 정점이었고, 2014년 8월 1.9%로 나타남. 기대불가는 2005년 8월 3.9%가 정점이었고, 2014년 8월 2.2%로 하락하였음.

<표 Ⅱ-2>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10.9)	281(2.0)	247(1.8)
2003. 8	2,403(17.0)	248(1.8)	362(2.6)
2004. 8	2,491(17.1)	580(4.0)	526(3.6)
2005. 8	2,728(18.2)	302(2.0)	585(3.9)
2006. 8	2,722(17.7)	465(3.0)	439(2.9)
2007. 8	2,531(15.9)	555(3.5)	460(2.9)
2008. 8	2,365(14.7)	374(2.3)	549(3.4)
2009. 8	2,815(17.1)	170(1.0)	521(3.2)
2010. 8	2,494(14.6)	305(1.8)	481(2.8)
2011. 8	2,668(15.2)	339(1.9)	436(2.5)
2012. 8	2,714(15.3)	289(1.6)	400(2.3)
2013. 8	2,761(15.1)	259(1.4)	412(2.3)
2014. 8	2,749(14.6)	353(1.9)	405(2.2)

주 :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Ⅱ-3>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 일하기로 계약한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년을 초과해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7년 8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2008년 8월 이후 집계가 가능한 2년 초

과 3년 이하의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했음(표 Ⅱ-3 참조).

- 이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7월 300인 이상, 2008년 7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의 영향으로 보임.

○ 기간제 중 1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수는 모두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9.3%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8월에는 43.3%로 나타남(표 Ⅱ-3 참조).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하여 2009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2.1%까지 규모가 커졌으나, 2014년 8월에는 36.8%로 감소하였음.

<표 Ⅱ-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2003. 8	947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2011. 8	168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2012. 8	191 (7.0)	905 (33.3)	1,304 (48.0)	165 (6.1)	78 (2.9)	71 (2.6)
2013. 8	187 (6.8)	964 (34.9)	1,266 (45.8)	160 (5.8)	93 (3.4)	90 (3.3)
2014. 8	188 (6.8)	1,012 (36.8)	1,189 (43.3)	200 (7.3)	86 (3.1)	73 (2.7)

주 : 괄호는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파견근로는 2014년 8월 임금근로자 중 1.0%를 차지하였으며, 용역근로의 비중은 2008년 8월 4.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음(표 Ⅱ-4 참조).

○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8월 2.8%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 내 근로도 계속 감소하여 2014년 8월 5만 명대로 떨어짐. 일일근로는 2007년 8월 이래 5%대에서 횡보 중이다가 2014년 8월 4.3%로 소폭 감소하였음.

<표 Ⅱ-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파 견	용 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3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8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주 :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Ⅲ.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 성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에서는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많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여성(53.5%)이 남성(46.5%)보다 많음(표 Ⅲ-1 참조).

-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비전형 근로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용역, 일일근로를 제외하면 전

<표 Ⅲ-1> 근로형태별·성별 구성(2014년 8월)

(단위 : 천 명, %)

	규 모			비 중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근로자 전체	18,776	10,635	8,141	100.0	56.6	43.4
정규직	12,699	7,809	4,890	100.0	61.5	38.5
비정규직	6,077	2,826	3,251	100.0	46.5	53.5
한시적 근로	3,508	1,726	1,782	100.0	49.2	50.8
기간제	2,749	1,341	1,409	100.0	48.8	51.2
반복갱신	353	202	152	100.0	57.0	42.9
기대불가	405	184	221	100.0	45.4	54.6
비전형 근로	2,112	1,115	997	100.0	52.8	47.2
파견	194	80	114	100.0	41.0	59.0
용역	604	326	278	100.0	53.9	46.1
특수형태근로	524	189	335	100.0	36.1	63.9
가정 내 근로	58	4	54	100.0	6.9	93.1
일일근로	805	557	248	100.0	69.2	30.8
시간제 근로	2,032	587	1,445	100.0	28.9	7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 여성이 많음. 반복갱신은 이하에서 나오겠지만 그 특성이 정규직과 유사하여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일근로에는 건설업 숙련공이 많아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2%를 정점으로 그 이후 비중이 작아져 2014년 26.6%를 기록하였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3.7%를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 하락(40.8%)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44.1%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39.9%로 감소하였음(표 Ⅲ-2 참조).

- 정점이었던 2004년과 가장 최근 시점인 2014년을 단순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5.6%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3.8%포인트 하락하여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 한시적 근로는 남녀 모두 전체 비정규직 비중 추이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비전형 근로는 남성의 경우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움(표 Ⅲ-2 참조).

- 파견, 용역근로자는 남녀 모두 2007년까지 각각 4.6%, 5.2%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각각 3.8%와 4.8%로 소폭 하락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남성은 2003년 2.8%에서 2014년 1.8%로, 여성은 6.3%에서 4.1%로 비중이 감소함.
- 일일근로는 남성의 경우 2003년 4.6%에서 2007년 6.0%까지 비중이 증가한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소폭 하락한 5.2%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3.0~4.5% 정도의 비중을 오가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남성의 경우 완만히 증가(2003년 3.3% → 2014년 5.5%)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남(2003년 11.7% → 2014년 17.7%).

<표 Ⅲ-2> 성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남성	23.5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여성	32.9	39.6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한시적 근로	남성	13.9	19.1	22.6	21.5	21.5	20.8	18.2	17.7	16.1	16.4	16.5	15.8	16.2
	여성	15.8	24.4	27.6	27.8	26.6	24.4	23.6	26.2	23.5	24.1	22.8	22.8	21.9
기간제	남성	10.9	15.7	15.9	17.1	16.5	15.2	13.6	14.3	12.4	12.6	13.0	12.9	12.6
	여성	11.0	18.8	18.8	19.8	19.5	16.9	16.2	20.8	17.7	18.8	18.4	18.1	17.3
비전형 근로	남성	10.3	10.0	11.4	11.1	10.3	12.4	11.9	12.1	12.4	12.5	11.9	11.4	10.5
	여성	15.5	14.5	16.0	15.0	15.8	16.1	15.1	16.2	14.8	15.7	14.3	13.2	12.2
파견 / 용역	남성	3.1	3.0	3.4	3.3	3.8	4.6	4.6	4.4	4.5	4.7	4.7	4.4	3.8
	여성	3.0	3.4	3.9	4.1	4.6	5.2	5.2	5.4	5.2	5.4	5.6	5.0	4.8
특수형태근로	남성	4.0	2.8	3.6	2.8	2.1	2.3	1.9	2.1	2.0	2.0	1.8	1.8	1.8
	여성	7.7	6.3	6.6	6.3	6.7	6.3	6.1	6.2	5.5	5.6	4.7	4.6	4.1
일일근로	남성	3.2	4.6	4.7	5.4	4.9	6.0	6.0	6.0	6.2	6.2	5.7	5.5	5.2
	여성	2.6	3.6	4.4	4.0	3.6	4.4	3.8	4.4	3.6	4.5	3.8	3.1	3.0
시간제 근로	남성	2.8	2.9	3.3	3.6	3.9	3.9	4.0	3.9	4.4	4.7	5.0	5.1	5.5
	여성	10.0	11.7	13.0	11.7	12.3	12.7	12.7	15.2	16.4	16.5	17.4	17.3	17.7

주 : 남성 및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 44.1%, 고졸 미만 23.6%, 대졸 이상 21.0%, 전문대졸 11.2%로 구성되어 있음(표 Ⅲ-3 참조).

○ <표 Ⅲ-3>의 학력집단 분포는 절대적인 임금근로자 인구규모로 볼 때 고졸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이 가장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각 학력집단 안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Ⅲ-1 참조).

<표 Ⅲ-3> 근로형태별 학력 구성(2014년 8월)

(단위 : 천 명, %)

	규 모					비 중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	18,776	2,464	7,315	2,805	6,193	100.0	13.1	39.0	14.9	33.0
정규직	12,699	1,027	4,635	2,122	4,915	100.0	8.1	36.5	16.7	38.7
비정규직	6,077	1,437	2,680	683	1,278	100.0	23.6	44.1	11.2	21.0
한시적 근로	3,508	771	1,350	461	926	100.0	22.0	38.5	13.1	26.4
기간제	2,749	635	1,004	366	744	100.0	23.1	36.5	13.3	27.1
반복갱신	353	35	134	54	130	100.0	9.9	38.0	15.4	36.8
기대불가	405	101	212	40	52	100.0	24.9	52.3	9.9	12.9
비전형 근로	2,112	676	1,009	183	244	100.0	32.0	47.8	8.6	11.6
파견	194	40	96	29	30	100.0	20.6	49.3	14.7	15.4
용역	604	244	256	48	56	100.0	40.4	42.4	7.9	9.3
특수형태근로	524	45	275	71	134	100.0	8.5	52.4	13.5	25.6
가정 내 근로	58	16	32	5	4	100.0	28.4	55.5	8.3	7.6
일일근로	805	355	390	36	23	100.0	44.1	48.5	4.5	2.9
시간제 근로	2,032	595	928	144	364	100.0	29.3	45.7	7.1	1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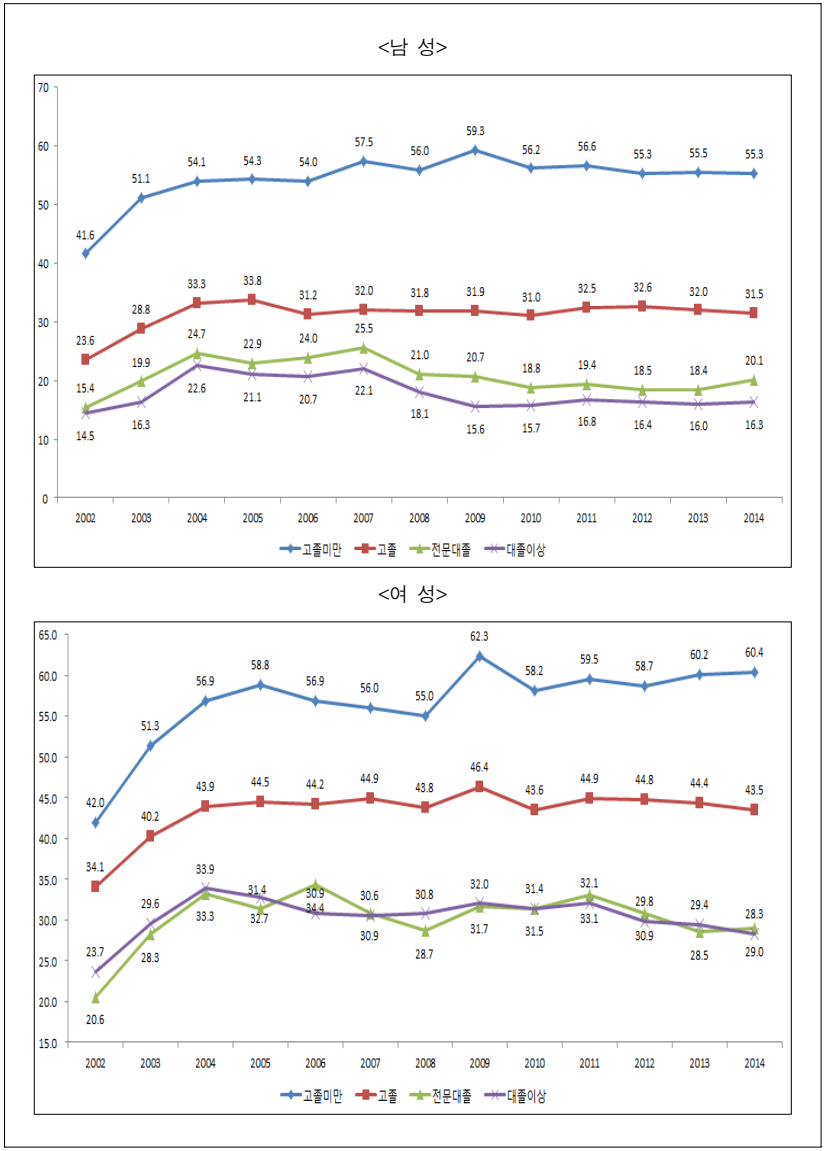
- 고졸 미만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에서 남녀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체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5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여성 고졸 임금근로자는 약 44%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여성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유사한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며, 이는 남성 고졸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비중에 근접한 수치임.

○ <표 Ⅲ-4>에서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아도 특수형태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 중 일일, 용역, 파견근로자의 비

[그림 Ⅲ-1] 교육수준별·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Ⅲ-4> 학력별 ·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고졸 미만	41.8	51.2	55.6	56.8	55.5	56.7	55.4	61.0	57.3	58.3	57.3	58.2	58.3
	고 졸	27.7	33.5	37.6	38.2	36.5	37.5	36.8	38.1	36.4	37.9	37.8	37.3	36.6
	전문대졸	17.8	23.9	28.8	27.1	29.1	28.1	24.7	25.8	24.6	25.7	24.3	23.2	24.3
	대졸 이상	17.2	20.3	26.1	24.7	24.1	24.8	22.3	21.0	21.0	21.9	20.9	20.8	20.6
한시적 근로	고졸 미만	21.8	31.1	33.5	33.1	32.6	29.4	29.0	35.4	29.6	29.8	28.9	30.8	31.3
	고 졸	14.2	21.6	24.4	24.7	23.3	21.7	20.2	21.4	19.3	19.1	19.8	19.1	18.5
	전문대졸	10.4	17.2	21.8	20.6	22.5	22.0	18.9	18.7	16.4	18.4	17.0	15.7	16.4
	대졸 이상	11.1	15.0	20.0	18.8	18.9	19.2	16.8	14.8	15.1	16.0	15.0	14.8	15.0
기간제	고졸 미만	16.1	24.3	23.4	22.9	24.4	21.2	19.8	27.6	22.8	23.7	23.5	25.1	25.8
	고 졸	10.1	17.3	16.8	18.3	17.6	15.0	13.8	16.7	14.2	14.3	15.1	15.0	13.7
	전문대졸	8.0	13.4	14.7	16.5	16.4	16.0	14.5	15.8	12.8	15.1	14.3	12.7	13.0
	대졸 이상	9.1	12.4	14.0	15.7	14.2	14.2	13.2	12.7	11.8	12.3	12.2	12.2	12.0
비전형 근로	고졸 미만	21.2	23.3	25.7	25.8	27.0	30.3	28.7	29.9	30.0	31.8	30.7	29.2	27.5
	고 졸	12.9	11.9	13.9	13.4	13.5	15.6	15.6	15.7	15.2	16.5	15.7	15.0	13.8
	전문대졸	7.1	7.1	7.8	6.8	6.8	6.5	6.3	7.8	8.0	6.9	6.1	6.5	6.5
	대졸 이상	5.3	4.9	6.1	5.4	4.5	4.9	4.9	5.6	5.0	5.1	4.4	4.3	3.9
파견	고졸 미만	0.4	0.6	0.9	0.7	1.1	1.1	0.8	1.0	1.8	1.5	1.9	2.0	1.6
	고졸	0.9	0.9	0.9	0.9	1.0	1.4	1.1	1.0	1.5	1.5	1.4	1.3	1.3
	전문대졸	0.8	0.8	1.0	1.0	0.6	1.3	1.0	1.1	1.2	0.7	0.9	1.0	1.0
	대졸 이상	0.5	0.3	0.5	0.6	0.5	0.5	0.6	0.9	0.7	0.7	0.8	0.5	0.5
용역	고졸 미만	5.8	6.6	7.9	8.3	9.6	10.6	11.1	10.5	9.6	10.2	10.8	10.6	9.9
	고 졸	2.1	2.1	2.5	2.6	3.1	3.7	4.3	3.9	3.8	4.4	4.6	4.1	3.5
	전문대졸	0.6	0.8	1.2	1.2	1.0	1.5	1.4	1.8	2.0	1.8	1.4	1.7	1.7
	대졸 이상	0.3	0.6	0.5	0.5	0.4	0.7	0.9	0.9	0.9	0.9	0.8	0.8	0.9
특수형태 근로	고졸 미만	5.0	3.7	3.9	3.5	4.0	3.4	2.2	3.2	2.7	2.6	2.3	2.1	1.8
	고 졸	6.7	4.8	5.7	4.9	4.6	5.2	5.0	4.8	4.2	4.6	4.1	4.0	3.8
	전문대졸	4.6	4.6	4.2	3.5	3.8	2.7	3.2	3.1	3.1	3.1	2.7	2.4	2.5
	대졸 이상	4.0	3.6	4.4	4.0	3.2	3.2	2.9	3.4	3.0	2.8	2.3	2.4	2.2
일일근로	고졸 미만	8.0	11.4	12.5	13.1	12.2	16.0	15.6	16.1	16.1	17.8	16.1	14.7	14.4
	고 졸	2.4	3.9	4.5	5.0	4.6	5.6	5.8	6.0	5.6	6.2	5.8	5.6	5.3
	전문대졸	0.8	0.9	1.0	1.2	1.2	1.1	0.8	1.7	1.5	1.4	0.9	1.3	1.3
	대졸 이상	0.1	0.4	0.5	0.4	0.3	0.4	0.5	0.4	0.4	0.6	0.6	0.4	0.4
시간제 근로	고졸 미만	8.8	10.2	12.2	12.1	13.3	14.2	15.2	16.8	19.2	20.2	22.3	22.5	24.2
	고 졸	6.1	7.3	8.0	7.7	8.0	8.6	9.0	10.3	10.8	11.5	12.2	12.5	12.7
	전문대졸	2.5	3.6	3.3	3.1	3.9	3.6	2.5	3.5	4.3	4.3	4.7	5.0	5.1
	대졸 이상	3.7	3.8	4.5	4.0	4.4	4.0	4.0	4.5	5.3	5.0	5.1	5.2	5.9

주 : 각 학력 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중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내내 극히 미미하지만, 특수형태근로에서는 2014년 기준 고졸 미만보다 높은 2.2% 비중을 기록함. 이는 특수형태근로에 학습지교사 같은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 연령별로 보면, 40대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한시적 근로자는 전연령대에서 20%에 근접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50대에, 시간제 근로자는 15~29세(28.0%)와 60세 이상(28.5%)에 가장 많이 분포함(표 Ⅲ-5 참조).

- 반면 정규직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정규직 중 4.3%만이 60세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19.5%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Ⅲ-2]는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여 성별로 2003년 8월과 2014년 8월 사이의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 모두 U자형의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시점인 2014년과 남녀 비정규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한 해가 2003년이므로 두 시점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함.
- 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시장 정착과정 중인 청년기에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높다가 정착에 성공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후, 남성의 경우는 50대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 저점은 2003년 35~39세, 2014년 30~34세로 30대에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함.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와 퇴장 연령대에서는 2003년보다 2014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더 증가했으나, 주력 연령대에서는 2003년보다 2014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져 더 강한 U자형으로 변화됨.

<표 Ⅲ-5> 근로형태별 연령 구성(2014년 8월)

(단위 : %)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전체	19.6	25.6	25.9	19.8	9.2	100.0
정규직	18.9	29.6	28.1	19.1	4.3	100.0
비정규직	20.9	17.2	21.3	21.1	19.5	100.0
한시적 근로	21.8	18.8	19.7	18.7	21.1	100.0
기간제	22.3	18.0	17.7	18.2	23.8	100.0
반복갱신	17.6	28.6	29.1	17.9	6.7	100.0
기대불가	22.3	15.7	24.5	22.7	14.8	100.0
비전형 근로	8.5	14.1	24.1	29.7	23.6	100.0
파견	18.8	21.4	20.2	20.4	19.1	100.0
용역	8.1	8.6	13.5	29.1	40.7	100.0
특수형태근로	6.8	23.9	38.5	24.8	5.9	100.0
가정 내 근로	8.3	23.1	28.8	31.7	8.3	100.0
일일근로	7.1	9.6	23.7	36.0	23.7	100.0
시간제 근로	28.0	12.0	16.5	15.0	2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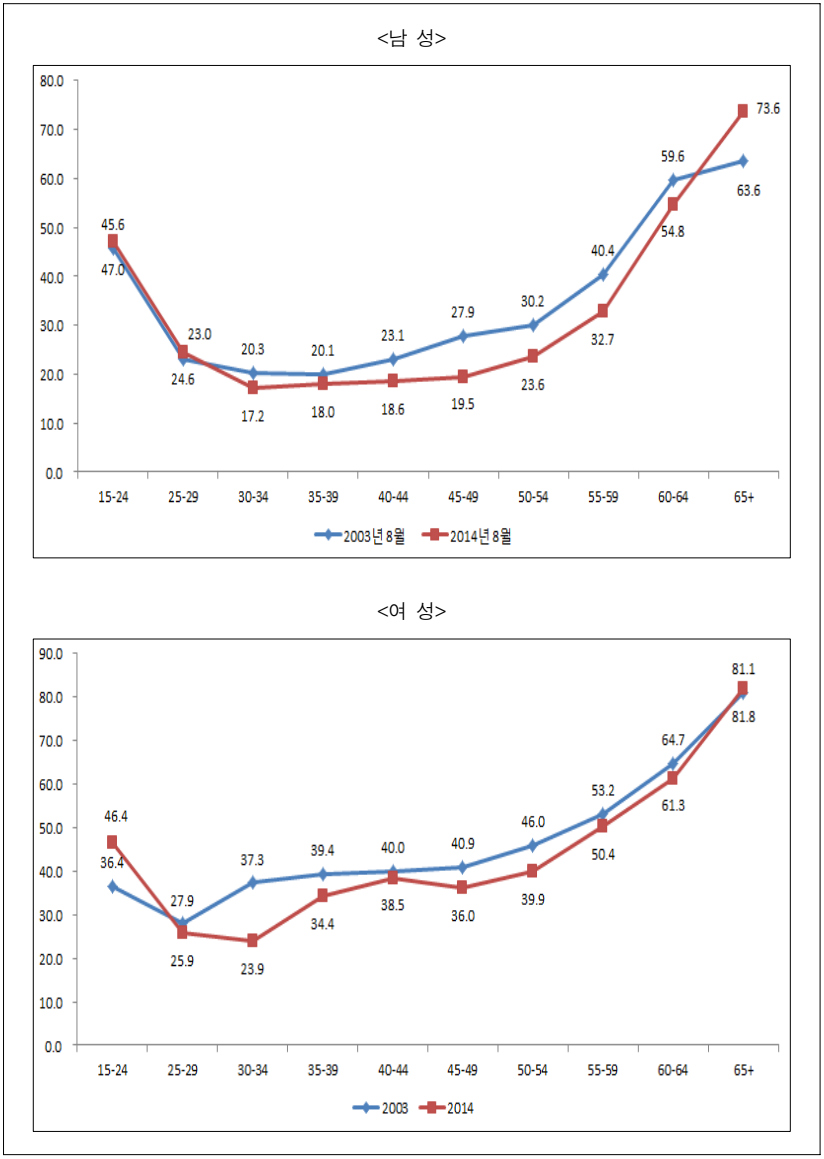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여성은 2003년에는 비정규직 비중 저점이 25~29세였는데, 2014년에는 30~34세로 변화함. 30~34세 비정규직 비중은 동 기간에 꾸준히 감소해 왔음.
  - 여기서는 두 해의 수치만 제시되었지만, 나머지 연도들도 보면 30~34세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치 변화는 여성의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됨.
- 60세 이상까지 일을 계속하는 경우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2004년 또는 2005년 정도를 정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국제금융위기가 있는

[그림 Ⅲ-2] 5세 단위 구간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09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다소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하는 추이를 보임(표 Ⅲ-6 참조).

○ 파견·용역은 국제금융위기(2009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표 Ⅲ-6 참조).
- 특수형태근로는 전 연령대에서 2003년에 비해 2014년 비중이 감소하였고, 일일근로는 전 연령대에서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시간제는 60세 이상의 경우 2003년 14.6%에서 2014년 33.5%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15~29세에서도 2003년 7.4%에서 2014년 15.5%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표 Ⅲ-6 참조).
- 노동시장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 40, 50대에서는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증가했음.
-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퇴장하는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주력 연령대에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왔음.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 <표 Ⅲ-7>은 2014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사업서비스업(13.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도소매업에도 많은 반면, 정규직은 제조업(26.2%)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은 특정 산업에 특정 근로형태가 집중되는 분포를 보임.
- 기간제는 사업서비스업(18.1%)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3%), 교육서비스업(11.1%) 등에도 많이 있음.
- 비전형 근로는 건설업(21.6%)과 사업서비스업(32.7%)에 절반 이상이 모여 있음.

<표 Ⅲ-6> 연령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15~29세	23.9	31.7	35.0	35.0	33.0	33.5	32.9	34.0	33.5	34.0	33.8	34.0	34.6
	30~39세	22.5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23.1	22.2	21.8
	40~49세	27.9	31.1	35.9	36.3	34.1	34.1	31.6	32.3	29.8	30.5	29.1	27.2	26.6
	50~59세	37.0	39.9	43.1	42.8	41.9	42.6	39.6	40.6	39.3	39.6	37.6	37.1	34.5
	60세 이상	55.2	65.9	67.8	66.6	69.0	65.9	65.7	72.7	69.6	70.5	70.5	67.5	68.7
한시적 근로	15~29세	14.9	23.3	26.2	26.4	25.4	24.1	23.0	23.9	22.2	21.8	20.4	20.9	20.9
	30~39세	11.1	16.7	21.2	20.0	20.3	19.9	17.2	15.4	14.1	15.3	15.3	14.0	13.7
	40~49세	14.1	19.0	22.4	22.4	20.6	18.9	17.0	16.9	15.2	15.7	15.2	14.5	14.2
	50~59세	19.3	24.9	27.6	25.8	25.7	23.0	21.2	22.4	19.7	19.7	19.2	19.1	17.6
	60세 이상	28.2	40.5	40.7	40.6	41.9	38.9	38.1	49.8	43.3	42.5	42.3	41.3	42.8
기간제	15~29세	11.5	19.6	19.4	21.8	20.1	18.8	17.7	20.2	17.8	17.7	16.7	17.1	16.7
	30~39세	7.9	12.8	13.6	14.8	14.5	13.8	12.3	12.2	10.2	11.4	11.8	11.2	10.3
	40~49세	10.0	14.4	14.7	15.4	14.8	12.3	11.3	12.2	10.3	11.3	11.4	11.0	10.0
	50~59세	14.9	20.0	19.5	19.4	19.2	16.1	14.5	17.5	15.1	14.6	15.3	14.6	13.5
	60세 이상	21.8	33.4	30.9	30.5	33.9	29.5	29.2	43.3	36.4	37.1	36.0	36.5	38.0
비전형 근로	15~29세	7.4	7.2	8.3	7.0	5.7	6.9	6.3	6.5	6.0	6.0	6.1	5.1	4.9
	30~39세	11.0	9.8	11.1	10.3	9.3	9.8	9.3	9.6	8.3	8.0	6.8	6.8	6.2
	40~49세	13.5	12.9	14.4	14.2	14.4	15.4	14.3	15.4	13.8	14.2	12.9	11.6	10.4
	50~59세	19.6	18.0	19.2	19.5	20.3	22.2	21.0	21.2	22.1	22.2	19.9	18.9	16.9
	60세 이상	31.0	32.5	35.7	32.1	34.6	35.5	35.0	31.5	33.0	35.8	34.4	31.0	28.9
파견	15~29세	1.0	0.8	0.9	1.0	0.9	1.4	0.9	1.5	1.5	1.1	1.2	1.2	1.0
	30~39세	0.6	0.7	0.7	0.8	0.6	0.9	0.8	0.9	0.8	0.8	0.9	0.8	0.9
	40~49세	0.4	0.7	0.9	0.6	0.8	1.1	0.9	0.9	1.0	1.2	1.0	0.7	0.8
	50~59세	0.5	0.3	0.6	0.6	1.2	0.8	0.8	0.7	1.4	1.3	1.3	1.4	1.1
	60세 이상	0.3	1.3	0.9	0.8	1.4	1.1	0.9	1.1	2.6	2.0	2.6	2.6	2.1
용역	15~29세	0.8	1.3	1.4	1.5	1.4	1.8	1.9	1.9	1.8	2.0	1.9	1.4	1.3
	30~39세	1.0	0.7	1.2	1.2	1.1	1.5	1.7	1.6	1.3	1.4	1.4	1.3	1.1
	40~49세	1.8	1.8	1.8	2.1	2.5	2.6	2.4	2.4	2.2	2.5	2.3	2.3	1.7
	50~59세	6.6	6.1	6.8	6.5	6.9	7.5	8.0	6.8	6.4	6.3	6.2	5.7	4.7
	60세 이상	13.8	14.1	15.8	14.7	17.4	18.0	19.2	16.3	15.3	16.4	16.5	14.3	14.2
특수 형태 근로	15~29세	4.2	3.0	3.8	2.5	1.8	1.7	2.1	1.5	1.3	1.5	1.2	0.9	1.0
	30~39세	6.2	5.2	5.4	5.1	4.5	4.4	4.0	4.4	4.0	3.4	2.6	2.9	2.6
	40~49세	6.5	4.9	5.7	5.3	5.3	5.5	5.2	5.5	4.7	4.8	4.6	4.3	4.1
	50~59세	5.5	3.6	4.4	3.9	4.3	4.2	3.2	3.8	3.8	4.3	3.8	3.6	3.5
	60세 이상	4.5	3.5	4.5	3.8	4.9	4.1	3.2	3.1	2.5	2.9	2.6	2.7	1.8
일일 근로	15~29세	0.9	2.2	2.1	2.2	1.7	1.9	1.5	1.7	1.3	1.5	1.8	1.6	1.5
	30~39세	2.1	2.7	3.3	3.2	2.8	3.0	2.9	2.6	2.1	2.3	1.7	1.7	1.6
	40~49세	4.1	5.3	5.8	6.2	5.8	6.5	6.2	6.8	5.7	5.9	5.1	4.3	3.9
	50~59세	5.9	7.5	7.4	8.4	7.7	10.2	10.1	10.3	10.8	10.7	9.1	8.4	7.8
	60세 이상	8.6	10.8	13.5	11.5	10.2	13.0	12.5	11.7	12.5	14.6	13.2	11.5	11.0
시간제 근로	15~29세	5.8	7.4	7.3	8.0	7.9	8.9	8.8	10.1	11.5	12.0	13.6	14.0	15.5
	30~39세	5.0	5.5	6.0	5.3	5.7	5.1	5.0	5.2	5.6	5.3	4.9	5.1	5.1
	40~49세	5.2	5.4	6.8	5.9	6.3	6.1	6.3	7.8	7.4	7.2	7.2	6.9	6.9
	50~59세	6.0	6.3	7.7	7.1	6.9	7.6	7.5	7.7	8.4	9.2	9.5	8.9	8.2
	60세 이상	12.0	14.6	17.2	16.3	19.9	19.8	21.7	23.1	28.4	28.6	31.9	31.6	33.5

주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Ⅲ-7>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2014년 8월)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근로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농어업	0.7	0.4	1.3	0.8	0.6	1.2	1.9	2.3	0.0	0.3	0.1	0.3	5.8	1.0
광 업	0.1	0.1	0.0	0.1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20.4	26.2	8.2	10.8	9.6	19.5	11.8	3.8	6.6	0.7	0.2	67.1	4.8	4.3
전기 등	0.4	0.6	0.2	0.3	0.2	0.6	0.1	0.1	0.3	0.2	0.0	0.0	0.0	0.1
하수 등	0.4	0.5	0.2	0.3	0.3	1.0	0.4	0.1	0.0	0.2	0.0	0.0	0.2	0.1
건설업	7.2	5.4	11.1	6.1	5.4	6.1	10.3	21.6	2.4	1.9	0.0	0.0	55.2	3.7
도소매	12.1	12.9	10.4	7.7	6.0	11.0	16.3	7.8	12.4	0.4	19.9	3.6	4.4	14.2
운 수	4.1	4.8	2.6	3.0	2.6	4.9	3.9	2.2	0.5	0.6	5.3	0.0	2.4	1.2
숙박음식	6.9	5.8	9.3	6.3	4.6	3.9	19.7	4.2	5.5	0.7	0.1	1.0	9.1	18.6
출판 등	3.4	3.9	2.2	3.1	3.3	3.9	1.5	0.7	1.9	0.1	1.5	4.5	0.0	1.1
금융보험	4.3	3.7	5.6	2.3	2.1	4.8	1.2	12.5	0.0	0.0	50.6	0.9	0.0	1.0
부동산임대	1.9	1.6	2.3	3.2	3.2	2.9	3.5	1.0	1.4	1.4	1.9	0.0	0.1	1.5
전문과학	4.7	5.9	2.3	3.3	3.2	6.3	1.6	0.6	2.7	0.1	0.1	3.6	0.7	0.9
사업서비스	5.9	2.1	13.8	15.8	18.1	10.3	4.8	32.7	52.0	91.9	1.8	2.4	6.9	4.5
공공행정	5.2	5.4	4.7	7.6	9.5	0.5	1.1	0.2	1.9	0.0	0.0	0.0	0.2	8.4
교 육	7.6	7.0	8.9	10.0	11.1	5.1	7.0	3.0	1.3	0.1	10.7	3.1	0.4	14.7
보건사회복지	8.7	8.1	10.0	13.9	15.3	13.5	4.6	1.2	8.5	0.7	0.0	3.5	0.5	14.7
예술 및 여가	1.3	1.1	1.8	2.0	1.9	1.6	3.2	0.5	0.0	0.0	1.3	0.0	0.7	2.6
협회, 개인서비스	4.1	4.1	4.1	3.0	2.7	2.5	5.7	4.2	2.7	0.5	6.5	2.6	6.3	6.0
가구내 등	0.5	0.3	0.9	0.3	0.2	0.1	1.5	1.1	0.0	0.0	0.0	7.6	2.4	1.4
국 제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은 특성상 사업서비스업에 대부분(91.9%)이 몰려 있으며, 파견도 사업서비스업(52.0%)에 절반 넘게 있으나 도소매업(12.4%)의 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는 금융보험업(50.6%), 도소매업(19.9%), 교육서비스업(10.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정 내 근로는 제조업(67.1%)에, 일일근로는 건설업(55.2%)에 몰려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도소매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18.6%), 교육서비스업(14.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7%)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각 산업 내에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37.0%)→2014년(32.4%)에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 숙박 및 음식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내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함(표 Ⅲ-8 참조).

- 2014년 기준으로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6.0%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 가구 내 서비스업임.
- 건설업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 비중이 2004년 31.1%에서 2014년 11.0%로 눈에 띄게 감소함. 이는 주로 기간제 중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근로자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
- 시간제 근로의 경우 비교적 전체 산업에서 고루 비중이 증가함. 특히 숙박 및 음식업(16.7%→28.9%), 도소매업(9.8%→12.7%), 보건 및 사회복지업(3.3%→18.3%), 공공행정(8.3%→17.5%), 예술 및 여가(11.4%→21.8%) 등에서 두드러지게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Ⅲ-8> 산업별 · 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4년)

(단위 : %)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전체		기간제			
	2004. 8	2014. 8	2004. 8	2014. 8	2004. 8	2014. 8	2004. 8	2014. 8
농어업	75.6	61.1	46.1	23.0	39.6	13.5	17.0	15.9
광 업	16.5	17.2	16.5	14.2	2.7	6.7	0.0	3.0
제조업	23.3	13.0	17.9	9.9	10.6	6.9	3.1	2.3
전기 등	23.1	14.2	20.8	11.2	13.2	8.2	3.1	2.4
하수 등	21.5	16.7	17.7	14.2	10.6	8.4	1.3	1.3
건설업	63.3	49.7	37.6	15.6	31.1	11.0	7.3	5.5
도소매	36.1	27.8	21.5	11.9	12.4	7.3	9.8	12.7
운 수	28.1	20.5	17.0	13.9	10.1	9.5	2.6	3.1
숙박음식	42.6	43.2	28.4	17.0	15.6	9.8	16.7	28.9
출판 등	31.4	21.3	27.0	17.4	20.4	14.2	3.0	3.5
금융보험	44.1	42.1	20.5	9.9	14.9	7.1	2.6	2.5
부동산임대	43.8	40.5	30.6	32.0	18.0	25.0	7.6	8.8
전문과학	27.7	15.8	22.4	13.3	16.8	10.0	2.7	2.1
사업서비스	77.5	76.0	47.6	50.2	37.4	45.2	5.2	8.4
공공행정	22.5	29.1	18.9	27.5	15.8	26.9	8.3	17.5
교 육	37.2	38.0	26.6	24.5	20.6	21.3	14.3	20.9
보건사회복지	26.7	37.3	24.0	29.7	17.5	25.7	3.3	18.3
예술 및 여가	45.0	45.4	35.8	28.4	27.7	20.9	11.4	21.8
협회, 개인서비스	30.2	32.5	17.9	13.6	11.7	9.5	8.8	15.7
가구내 등	78.3	57.0	36.6	13.0	20.1	6.0	42.9	30.4
국 제	28.5	6.3	25.8	6.3	15.5	6.3	2.6	0.0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4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Ⅲ-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 · 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4년)

(단위 : %)

	비전형 근로									
	전 체		파 견		용 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2004. 8	2014. 8	2004. 8	2014. 8	2004. 8	2014. 8	2004. 8	2014. 8	2004. 8	2014. 8
농어업	30.7	37.7	0.0	0.0	0.0	1.5	2.1	0.2	28.2	36.8
광 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9	2.1	0.3	0.3	0.1	0.1	1.3	0.0	2.5	1.0
전기 등	4.0	2.0	0.0	0.7	0.0	1.2	1.7	0.0	0.0	0.0
하수 등	2.5	3.7	0.0	0.0	0.0	1.8	2.5	0.0	0.0	1.9
건설업	26.7	33.5	0.8	0.3	1.0	0.8	2.2	0.0	24.0	32.7
도소매	13.0	7.3	1.5	1.1	0.0	0.1	9.1	4.6	2.2	1.6
운 수	12.3	6.2	0.2	0.1	0.6	0.5	9.9	3.6	2.1	2.5
숙박음식	8.3	6.8	0.3	0.8	0.3	0.3	2.6	0.0	5.4	5.6
출판 등	5.6	2.4	1.4	0.6	0.1	0.1	3.1	1.3	0.2	0.0
금융보험	26.2	32.9	0.3	0.0	0.0	0.0	25.8	32.9	0.1	0.0
부동산임대	12.5	6.2	1.5	0.8	2.7	2.3	6.8	2.9	1.6	0.2
전문과학	5.8	1.5	0.8	0.6	0.6	0.1	3.8	0.1	0.5	0.6
사업서비스	65.8	62.7	4.7	9.2	56.9	50.5	2.4	0.8	6.3	5.1
공공행정	2.7	0.5	0.5	0.4	0.2	0.0	0.5	0.0	0.7	0.1
교 육	7.3	4.5	0.1	0.2	0.0	0.0	6.5	3.9	0.4	0.2
보건사회복지	1.4	1.6	0.2	1.0	0.1	0.3	0.7	0.0	0.2	0.2
예술 및 여가	8.9	4.4	0.5	0.0	0.2	0.0	3.5	2.8	5.4	2.2
협회, 개인서비스	10.8	11.4	1.1	0.7	0.7	0.4	5.6	4.4	3.3	6.6
가구내 등	43.9	25.4	0.0	0.0	0.0	0.0	6.5	0.0	26.9	21.1
국 제	4.8	0.0	0.0	0.0	0.0	0.0	4.8	0.0	0.0	0.0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4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함(표 Ⅲ-9 참조).
-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2004년 4.7%에서 2014년에는 9.2%로 증가함.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용역근로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2004년(56.9%)에 비해 2014년에는 50.5%로 다소 감소함.
- 한편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비중이 큰데, 2004년(25.8%)에 비해 2014년에는 7.1%포인트 증가하여 32.9%를 기록함.
- 건설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0%에서 2014년에는 32.7%로 증가함.
- 한편 2014년 농림어업 임금근로자의 36.8%가 일일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Ⅲ-10>은 2014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근로형태별 직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30.8%)으로 둘째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전문가의 약 두 배에 달함.
- 정규직은 사무직(26.4%)과 전문가(24.8%)에 많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8.5%가 있음.
- 기간제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31.3%가 분포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사무직에도 약 40% 정도가 있음.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자는 정규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직종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비전형 근로의 세부형태들은 일부 직종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청소·경비와 같은 일자리가 많은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67.0%)에 많이 있으며, 보험업, 퀵,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판매직(66.8%)에 많이 있고, 전문가(12.6%), 단순노무직(10.5%)에도 상당수 분포함.

- 가정 내 근로(62.4%), 일일근로(50.0%)도 단순노무직에 절반 이상 분포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단순노무직(36.7%)에 뒤이어 서비스직(19.6%), 전문가(17.7%), 판매업(12.6%)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표 Ⅲ-10> 근로형태별 직업 분포(2014년 8월)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 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조작	단순 노무	전 체
임금근로자	1.8	22.3	21.5	9.5	8.8	0.2	8.5	11.6	15.7	100.0
정규직	2.3	24.8	26.4	8.5	7.0	0.2	8.3	14.0	8.5	100.0
비정규직	0.7	17.0	11.4	11.7	12.4	0.4	9.1	6.6	30.8	100.0
한시적 근로	1.1	22.0	16.0	9.5	6.1	0.4	6.6	8.6	29.8	100.0
기간제	1.1	23.4	16.7	8.3	4.8	0.4	5.9	8.1	31.3	100.0
반복갱신	1.9	24.8	19.8	8.5	9.1	0.5	6.4	12.5	16.5	100.0
기대불가	0.4	10.0	7.9	18.5	12.3	0.8	11.0	8.2	30.9	100.0
비전형 근로	0.1	4.8	3.4	6.8	19.8	0.3	16.0	6.1	42.8	100.0
파견	0.0	9.6	9.9	16.5	16.0	0.2	7.0	13.7	27.2	100.0
용역	0.2	2.1	5.1	6.2	3.6	0.2	5.8	9.7	67.0	100.0
특수형태근로	0.1	12.6	2.5	2.4	66.8	0.0	0.3	4.8	10.5	100.0
가정 내 근로	0.0	6.1	3.6	0.7	1.0	0.0	5.2	3.3	80.1	100.0
일일근로	0.0	0.2	0.8	8.2	2.2	0.7	36.2	2.8	49.0	100.0
시간제 근로	0.1	17.9	8.3	19.5	11.9	0.1	2.5	1.8	37.7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Ⅲ-11>은 직종 안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중은 단순노무직(62.9% → 63.6%)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감소함.
- 2004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0%에서 2014년 32.4%로 감소한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함.
- 근로형태별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면,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에서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에서는 증가함.

- 특히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16.2% → 26.0%)에서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시간제 근로는 서비스직(13.6% → 22.2%)과 판매직(9.7% → 14.7%)에서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판매업에서의 비중만 증가하였음(21.6% → 22.1%).

<표 Ⅲ-11> 직종별 · 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4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 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 · 조작	단순 노무
비정규직	2004	18.7	29.4	23.0	40.4	47.4	65.6	45.4	23.1	62.9
	2014	12.0	24.7	17.1	39.7	45.7	46.5	34.5	18.4	63.6
한시적 근로	2004	17.2	22.8	19.7	27.1	20.7	45.0	28.8	17.2	37.6
	2014	11.1	18.4	13.9	18.7	13.0	33.6	14.4	13.8	35.4
기간제	2004	12.1	16.2	14.0	17.0	12.4	36.1	21.9	9.9	27.4
	2014	8.6	15.3	11.4	12.8	8.0	22.9	10.2	10.2	29.2
비전형 근로	2004	2.7	5.7	3.5	10.4	26.7	23.2	18.4	7.5	31.5
	2014	0.6	2.4	1.8	8.0	25.4	15.0	21.0	5.9	30.7
파견	2004	0.4	0.5	0.4	0.8	2.6	0.8	1.2	0.4	0.9
	2014	0.0	0.4	0.5	1.8	1.9	0.6	0.8	1.2	1.8
용역	2004	0.5	0.1	0.6	1.9	1.2	2.9	1.9	2.2	11.8
	2014	0.4	0.3	0.8	2.1	1.3	3.0	2.2	2.7	13.7
특수형태 근로	2004	1.8	4.5	1.9	3.6	21.6	2.0	2.0	3.9	3.5
	2014	0.2	1.6	0.3	0.7	21.3	0.0	0.1	1.2	1.9
일일근로	2004	0.0	0.3	0.1	5.0	1.8	17.6	13.3	0.9	13.8
	2014	0.0	0.0	0.2	3.7	1.1	11.3	18.1	1.0	13.4
시간제 근로	2004	0.2	7.0	2.8	13.6	9.7	8.3	4.7	1.4	16.2
	2014	0.7	8.7	4.2	22.2	14.7	5.6	3.1	1.7	26.0

주 : 1) 각 직종 내 임금근로자 중 세부 근로형태의 비중임.
2) 6차 직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4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일일근로의 경우 기능직(13.3% →18.1%)과 사무직(0.1% →0.2%), 그리고 조립·조작 직종(0.9% →1.0%)에서 증가함.
-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과 세부 근로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사업체규모별로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비정규직은 1~4인(27.6%) 사업체, 정규직은 10~29인(21.7%) 사업체에 많이 분포함(표 Ⅲ-12 참조).
-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대부분 분포함.

○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중을 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 1~4인의 경우 46.9% (2014년)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표 Ⅲ-13 참조).

<표 Ⅲ-12> 근로형태별 사업체규모 분포(2014년 8월)

(단위 :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19.0	17.5	22.1	19.4	9.7	12.3	100.0
정규직	15.0	16.4	21.7	20.2	11.6	15.3	100.0
비정규직	27.6	20.0	23.0	17.6	5.8	6.1	100.0
한시적 근로	18.3	17.8	25.2	21.0	8.2	9.5	100.0
기간제	16.0	16.9	26.0	22.3	8.7	10.1	100.0
반복갱신	11.1	16.0	26.2	23.3	9.9	13.5	100.0
기대불가	40.6	25.3	19.3	10.3	2.7	1.8	100.0
비전형 근로	32.9	20.6	25.0	16.9	3.5	1.1	100.0
파견	32.3	17.2	22.7	17.7	7.4	2.8	100.0
용역	24.6	20.8	29.5	18.7	5.1	1.3	100.0
특수형태근로	14.7	8.9	35.4	34.6	4.8	1.5	100.0
가정 내 근로	83.5	5.7	4.3	5.4	0.0	1.0	100.0
일일근로	50.0	29.6	15.9	3.9	0.4	0.2	100.0
시간제 근로	41.6	22.9	19.3	9.8	2.4	4.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Ⅲ-13> 사업체규모별 ·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1~4인	46.6	48.8	50.4	46.6	47.2	44.4	44.5	45.6	46.1	47.1	46.4	46.9
	5~9인	38.5	42.6	40.5	38.5	38.2	39.1	40.3	37.6	38.8	38.1	37.3	36.8
	10~29인	33.7	38.4	37.5	37.8	38.2	36.4	40.3	36.0	37.3	34.6	33.7	33.7
	30~99인	28.7	33.5	33.3	32.8	33.0	29.9	32.0	31.6	31.6	31.1	29.7	29.4
	100~299인	21.8	29.4	28.8	27.7	28.9	24.7	23.5	21.0	21.2	21.9	21.8	19.4
	300인 이상	14.7	20.4	19.7	20.0	19.5	17.3	17.1	15.4	17.2	14.6	15.2	16.0
한시적 근로	1~4인	27.6	27.6	29.3	25.3	21.4	20.8	18.7	17.1	17.0	17.6	18.0	18.0
	5~9인	24.1	27.1	24.4	24.6	21.3	21.0	21.0	17.8	19.3	18.9	19.0	19.0
	10~29인	21.9	25.2	24.3	25.2	24.4	22.3	26.5	22.9	23.2	21.9	21.1	21.3
	30~99인	19.3	23.9	23.3	23.2	23.2	19.7	22.4	22.2	22.3	22.0	20.5	20.3
	100~299인	17.2	23.5	23.8	22.6	24.9	20.5	19.4	17.0	16.7	18.0	17.8	15.7
	300인 이상	12.8	18.1	17.1	18.2	17.7	16.3	15.5	14.2	15.6	13.4	13.6	14.4
기간제	1~4인	20.5	17.6	18.5	17.7	13.4	11.2	10.9	10.2	10.8	12.2	12.9	12.3
	5~9인	19.3	18.5	17.2	18.4	14.2	14.1	15.2	11.9	13.6	14.1	13.9	14.2
	10~29인	17.7	18.0	19.4	19.2	18.2	17.5	22.6	18.5	19.2	17.8	17.4	17.2
	30~99인	15.8	17.5	19.3	18.1	17.5	15.6	20.0	18.9	18.7	18.7	18.2	16.8
	100~299인	14.2	16.5	20.0	17.7	18.6	16.4	17.0	14.2	13.4	14.9	15.1	13.2
	300인 이상	11.1	12.7	14.1	13.8	13.7	13.0	14.0	11.1	12.8	11.9	11.5	12.1
비전형 근로	1~4인	18.3	19.5	18.6	19.2	21.4	18.8	20.7	21.6	22.2	21.5	20.8	19.5
	5~9인	13.2	15.6	15.5	13.8	16.4	16.8	17.8	16.8	17.9	17.0	14.8	13.2
	10~29인	13.2	15.2	14.2	14.7	16.2	16.5	16.7	14.9	15.9	14.2	13.3	12.7
	30~99인	11.4	12.7	12.1	11.8	12.4	12.0	12.4	11.9	11.4	10.6	10.6	9.8
	100~299인	6.5	7.8	7.0	6.7	5.8	5.4	5.6	5.0	5.1	4.6	4.3	4.0
	300인 이상	2.3	3.0	2.9	2.4	2.3	1.4	1.9	1.9	1.6	1.1	1.2	1.0
파견	1~4인	1.0	1.1	1.1	0.9	1.3	1.0	1.2	1.7	1.9	1.6	1.8	1.8
	5~9인	0.5	0.8	0.8	0.7	0.9	0.8	0.6	1.1	0.9	1.6	1.0	1.0
	10~29인	0.8	0.7	0.8	0.9	1.1	0.9	1.2	1.3	1.3	1.3	1.1	1.1
	30~99인	0.5	0.9	0.7	1.0	1.5	1.1	1.1	1.4	1.1	1.0	1.2	0.9
	100~299인	0.8	0.8	0.6	1.3	1.0	1.0	1.1	0.9	0.7	0.7	0.7	0.8
	300인 이상	0.3	0.3	0.6	0.4	0.6	0.2	0.6	0.5	0.3	0.5	0.2	0.2
용역	1~4인	1.2	2.1	2.0	2.8	3.3	4.2	3.5	4.0	4.2	4.9	4.4	4.2
	5~9인	2.7	3.7	3.4	4.1	4.5	5.0	4.8	4.8	4.4	5.1	4.1	3.8
	10~29인	3.5	3.6	4.0	4.5	5.5	5.8	5.5	4.6	5.4	5.0	4.7	4.3
	30~99인	3.5	3.4	3.5	3.4	3.9	3.7	4.0	3.5	3.7	3.3	3.6	3.1
	100~299인	2.1	2.4	2.7	2.5	2.5	2.4	1.9	1.6	2.3	2.3	2.0	1.7
	300인 이상	0.9	1.0	0.8	1.0	0.7	0.3	0.6	0.7	0.8	0.3	0.4	0.4
특수형태 근로	1~4인	4.8	4.4	3.5	4.4	4.3	3.1	3.4	2.9	3.1	2.8	2.5	2.2
	5~9인	3.1	4.0	3.3	2.3	2.4	1.8	2.4	1.6	2.0	1.4	1.7	1.4
	10~29인	5.3	6.6	5.5	5.7	5.6	5.8	5.8	5.0	5.3	4.7	4.7	4.5
	30~99인	6.2	7.2	6.8	6.1	6.2	6.2	6.2	6.1	6.0	5.5	5.1	5.0
	100~299인	3.0	3.9	3.2	2.3	1.9	1.9	2.0	1.9	1.5	1.3	1.1	1.4
	300인 이상	0.9	1.1	1.3	0.9	0.7	0.7	0.7	0.6	0.4	0.3	0.5	0.3
일일근로	1~4인	8.9	10.2	10.7	9.3	12.3	10.8	12.4	12.4	13.0	12.2	11.7	11.3
	5~9인	7.4	7.7	8.6	7.3	9.1	9.8	10.5	9.5	10.8	9.1	8.1	7.2
	10~29인	3.9	4.5	4.2	4.1	4.6	4.6	4.4	3.9	4.2	3.5	3.0	3.1
	30~99인	1.3	1.3	1.3	1.5	1.2	1.2	1.3	1.0	0.8	0.9	0.6	0.9
	100~299인	0.4	0.7	0.7	0.5	0.5	0.1	0.6	0.5	0.5	0.3	0.5	0.2
	300인 이상	0.2	0.3	0.2	0.2	0.2	0.1	0.0	0.0	0.1	0.0	0.2	0.1
시간제 근로	1~4인	15.1	17.5	16.7	17.1	18.1	17.4	20.1	21.5	22.0	23.4	11.7	23.6
	5~9인	8.3	9.0	8.4	8.7	9.1	9.4	10.6	11.5	11.3	12.9	8.1	14.1
	10~29인	4.9	6.0	5.7	6.3	5.7	6.5	7.6	8.3	8.8	8.8	3.0	9.4
	30~99인	3.3	3.5	3.2	3.5	3.7	3.7	4.5	5.2	5.1	5.3	0.6	5.5
	100~299인	2.4	2.3	1.9	2.3	2.5	2.2	3.0	2.5	2.6	3.1	0.5	2.7
	300인 이상	1.8	2.0	1.8	1.8	1.7	1.9	1.9	2.8	2.9	2.3	0.2	3.5

주 : 각 사업체 규모 내 임금근로자 중 세부 근로형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기간제 근로는 2004년에만 해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기간제 비중이 15% 이상이었고, 2005년 이후로는 10~99인 규모 사업체에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 초반대, 10~99인은 10% 후반대의 비중을 보이는 형태로 변함.

○ 종사상지위별로 근로형태별 분포를 보면, 정규직은 대부분 상용직(79.1%)이며, 비정규직 중 상용직은 34.9%인 것으로 나타남(표 Ⅲ-14 참조).

- 비정규직 중에서는 임시직의 비중이 큼(43.3%).

<표 Ⅲ-14>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분포(2014년 8월)

(단위 : 천 명, %)

	규 모			비 중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임금근로자	12,165	5,104	1,507	100.0	64.8	27.2	8.0
정규직	10,047	2,471	182	100.0	79.1	19.5	1.4
비정규직	2,119	2,633	1,326	100.0	34.9	43.3	21.8
한시적 근로	1,842	1,393	273	100.0	52.5	39.7	7.8
기간제	1,549	1,012	188	100.0	56.3	36.8	6.8
반복갱신	257	88	8	100.0	72.6	25.0	2.3
기대불가	36	292	76	100.0	9.0	72.2	18.9
비전형 근로	529	728	855	100.0	25.1	34.5	40.5
파견	122	60	13	100.0	62.7	30.7	6.5
용역	393	161	50	100.0	65.1	26.6	8.3
특수형태근로	12	495	17	100.0	2.3	94.5	3.2
가정 내 근로	3	14	42	100.0	4.5	23.7	71.9
일일근로	0	0	805	100.0	0.0	0.0	100.0
시간제 근로	194	1,300	538	100.0	9.5	64.0	2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반복갱신이 가능한 한시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72.6%로 정규직의 상용직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파견, 용역의 상용직 비중은 비전형 근로 가운데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는 임시·일용근로에 대부분 속했음.
- 특수형태근로의 대부분(94.5%)은 임시근로에 분포함.

○ 근로형태별로 종사상지위 분포의 추세를 보면, 상용직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17~20% 수준을 특별한 추세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시직 중 비정규직 비중은 적어도 2009년 이후로는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51.6%를 기록함(표 Ⅲ-15 참조).

- 상용직과 임시직 중 한시적 근로의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용직 중 한시적 근로 비중은 뚜렷이 감소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한시적 근로 안에서도 특히 기간제에서 뚜렷이 나타남.
- 상용직 중 비전형 근로 비중은 2004년 4.8%였으나 2010년 이후 5%대에서 횡보(2014년 4.4%)를 유지하고 있고, 일용직 중 비전형 근로 비중은 2004년 41.4%였으나 2009년 이후 5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상용직 중 파견근로 비중은 2009년 이후 1%대로 올라섰고, 용역근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2%를 차지함.
- 상용직 중 특수형태근로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14년 0.1%로 감소함.
- 일용직 중 일일근로 비중은 2004년 32.1%였으나 2014년에는 53.4%로 증가함.
- 일용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2004년 28.9%였으나 2014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음. 임시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2004년 9.4%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5.5%까지 증가함.
- 상용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같은 기간에 0.2%에서 1.6%로 증가하였으나 상용직 중에는 정규직이 워낙 많아 시간제 근로의 비중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5> 근로형태별 ·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	상용	14.5	20.9	19.1	19.5	20.9	17.7	17.3	18.5	19.2	18.7	17.9	17.4
	임시	36.4	40.9	42.5	41.7	41.8	43.5	49.9	45.5	48.5	48.8	51.0	51.6
	일용	87.3	87.5	87.6	84.3	84.9	82.5	82.5	83.1	84.5	88.1	87.9	87.9
한시적 근로	상용	12.5	18.1	17.0	18.0	19.0	16.0	15.7	17.0	17.3	16.6	15.5	15.1
	임시	22.0	25.8	26.1	24.7	24.2	25.5	31.1	24.7	26.2	25.8	27.1	27.3
	일용	50.9	46.4	46.1	43.3	31.8	28.1	22.5	16.6	15.1	16.7	17.9	18.1
기간제	상용	10.5	12.9	14.9	14.2	14.5	13.2	14.4	14.6	14.7	14.4	13.6	12.7
	임시	14.4	14.2	14.9	15.0	14.9	15.4	23.4	16.7	18.4	18.3	19.8	19.8
	일용	46.4	39.2	38.1	38.4	24.7	19.7	13.5	9.0	9.5	12.0	12.2	12.5
비전형 근로	상용	3.4	4.8	3.6	3.5	4.5	4.1	4.8	5.2	5.3	5.2	4.9	4.4
	임시	13.6	14.9	15.3	15.7	16.0	16.7	16.5	15.3	16.2	15.5	15.5	14.3
	일용	37.5	41.4	40.3	41.0	48.7	46.3	52.0	54.9	59.1	58.6	57.4	56.7
파견	상용	0.6	0.8	0.7	0.7	1.0	0.8	1.0	1.4	1.2	1.2	1.2	1.0
	임시	0.8	0.8	1.0	1.0	1.1	1.1	1.1	1.2	1.2	1.5	1.1	1.2
	일용	0.6	0.9	0.7	0.9	1.4	0.8	0.5	0.5	0.4	0.5	0.9	0.8
용역	상용	1.5	2.1	2.0	2.5	3.1	3.1	3.6	3.7	3.8	3.9	3.6	3.2
	임시	3.8	3.8	4.1	4.1	4.5	5.2	4.2	3.6	4.0	3.7	3.5	3.1
	일용	2.8	3.3	3.3	4.0	4.5	5.0	3.4	2.5	3.3	3.5	3.0	3.3
특수형태근로	상용	1.3	1.7	0.9	0.2	0.3	0.2	0.1	0.1	0.2	0.1	0.0	0.1
	임시	8.3	9.8	9.5	9.5	10.0	10.3	10.7	10.4	10.9	9.9	10.5	9.7
	일용	5.1	5.2	4.4	5.8	5.1	3.0	4.1	2.7	2.9	2.7	2.0	1.1
가정 내 근로	상용	0.1	0.3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임시	1.0	0.6	0.9	1.4	0.6	0.2	0.5	0.1	0.2	0.4	0.5	0.3
	일용	5.3	5.8	4.3	4.9	4.4	2.7	3.5	3.4	3.3	2.9	2.7	2.8
일일근로	상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임시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용	28.9	32.1	33.0	31.9	40.6	40.4	46.7	49.0	54.4	54.6	53.5	53.4
시간제 근로	상용	0.1	0.2	0.2	0.2	0.2	0.2	0.5	0.8	1.2	1.3	1.5	1.6
	임시	8.0	9.4	8.8	10.6	11.5	11.6	14.7	18.4	19.6	22.2	23.9	25.5
	일용	25.8	28.9	27.6	28.0	29.0	31.0	33.1	33.5	32.9	37.0	35.6	35.7

주 : 각 종사상지위 내 임금근로자 중 개별 근로형태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Ⅳ.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1. 임 금

○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2002년 67.1에서 2014년 55.8로 떨어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됨(표 Ⅳ-1 참조).

-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2년 67.1에서 신용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61.3으로 떨어졌고, 내수침체가 있었던 2008년 다시 60.9로 하락한 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또다시 54.6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2010년 이후에는 정규직과의 상대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됨.

○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을 보면, 반복갱신(85.6)>특수형태근로(79.6)>기간제(60.8)>파견(58.6)>용역(53.1)>기대불가(49.4)>일일근로(48.9)>시간제 근로(25.4)>가정 내 근로(23.2)의 순으로 월평균상대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 상대임금은 2002년(72.5) 정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09년 59.6, 2010년 59.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2년 62.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3년 62.1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4년에는 60.8로 하락함.
- 반복갱신근로는 2002년을 제외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에는 85.6으로 2013년에 비해 하락함.
- 파견근로는 2002년 78.9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61.5로 하락함. 2012년 65.8로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 58.9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14년에도 58.6로 하락함.
- 용역근로는 2002년 59.2가 정점이었고, 2006년 48.9로 가장 낮았

는데,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0~51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 이후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는 2002년(82.3) 정점에서 꾸준히 하락해 2006년 69.3, 2009년 69.5로 낮은 수치를 보인 이후 상승하여 2011년 75.0까지 상승한 이후 2012년(73.7), 2013년(70.7) 연속으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79.6로 상승함으로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가정내 근로, 일일근로 모두 2002년이 정점이었는데, 가정 내 근로는 2010년(19.0)이 가장 낮았으며 2011, 2012년 연속 상승하였지만 2013년 23.9, 2014년 23.2로 하락하고 있음. 반면 일일근로는 2009년(43.3)이 가장 낮았고 이후 2012년(46.8), 2013년(47.6), 2014년(48.9) 연속 상승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2002년(34.3) 이후 꾸준히 상대임금이 하락해 왔으며, 2009년 이후 24~25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4년에는 25.4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표 Ⅳ-1>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56.6	56.1	55.8
한시적 근로	71.3	65.1	69.5	67.2	68.8	71.7	68.5	59.1	61.0	62.9	63.7	62.9	62.0
기간제	72.5	64.5	67.0	68.2	67.7	70.6	70.0	59.6	59.3	61.3	62.8	62.1	60.8
반복갱신	79.9	88.1	96.2	91.7	93.0	97.0	87.1	87.7	98.6	92.2	87.3	94.8	85.6
기대불가	54.3	53.4	51.9	50.1	49.8	47.0	49.5	47.2	46.2	50.1	52.7	48.5	49.4
비전형 근로	67.0	58.2	60.3	58.5	54.8	55.4	56.3	54.1	54.4	55.3	56.2	55.5	58.2
파견	78.9	65.8	71.8	71.3	66.1	66.8	69.3	64.3	61.5	63.8	65.8	58.9	58.6
용역	59.2	51.9	52.1	51.4	48.9	51.0	50.9	50.5	51.2	51.3	51.4	53.2	53.1
특수형태근로	82.3	75.8	78.5	77.1	69.3	70.8	73.0	69.5	71.0	75.0	73.7	70.7	79.6
가정 내 근로	36.4	24.6	31.8	30.7	31.3	28.3	22.9	27.3	19.0	21.8	27.0	23.9	23.2
일일근로	54.2	48.0	47.2	46.6	45.7	44.4	46.2	43.3	45.3	44.2	46.8	47.6	48.9
시간제 근로	34.3	29.8	30.4	28.3	28.9	27.9	27.0	24.3	24.6	25.3	24.7	25.7	25.4

주 :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보면, 2014년 64.3로 2013년 64.8에 비해 소폭 하락함(표 Ⅳ-2 참조).

- 여전히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기대불가, 특수형태, 일일 근로는 2013년에 비해 상대임금 수준이 다소 개선됨.
- 반면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 가정내 근로, 시간제 근로는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2013년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짐.

<표 Ⅳ-2> 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0.5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한시적 근로	83.0	70.4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기간제	86.9	70.7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반복갱신	82.1	88.4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기대불가	59.3	55.8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비전형 근로	72.6	66.3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파견	78.7	68.0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용역	56.5	49.4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특수형태근로	89.5	82.9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가정 내 근로	50.2	36.4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일일근로	62.5	63.2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4.4
시간제 근로	101.1	85.1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주 :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근로시간 * 365/12*7).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근로시간

○ 다음으로 평균 주당근로시간을 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됨.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감소추세에 있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용역근로만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길고 나머지 근로형태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표 Ⅳ-3 참조).
- 정의상 근로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시간제를 제외할 경우 가정 내 근로의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음.

<표 Ⅳ-3>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평균 주당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49.3	48.5	47.8	47.5	46.6	45.9	45.1	43.9	43.4	42.7	42.0	41.7	41.5
정규직	51.0	50.2	49.7	49.2	48.5	47.9	46.9	45.9	45.6	45.0	44.2	44.0	43.8
비정규직	44.9	45.0	44.7	44.5	43.1	42.5	41.7	40.1	39.1	38.4	37.7	37.1	36.7
한시적 근로	46.5	46.8	46.4	46.5	45.2	44.9	44.3	42.3	41.5	40.7	40.2	39.5	39.0
기간제	45.7	46.2	45.1	45.6	44.3	44.1	43.8	41.5	40.7	39.8	39.3	38.7	38.1
반복갱신	47.0	49.3	49.6	50.9	47.8	47.1	45.2	45.3	43.2	43.5	44.2	43.2	42.8
기대불가	44.3	49.3	49.1	48.4	48.2	46.6	45.8	45.4	44.5	43.8	43.4	42.2	41.8
비전형 근로	47.6	46.6	45.8	45.9	44.7	44.1	44.1	42.7	42.6	41.9	41.7	41.1	41.0
파견	50.9	49.1	48.0	48.2	47.6	46.0	44.2	41.3	43.6	42.8	39.1	39.3	40.7
용역	54.3	54.1	52.9	52.2	51.9	51.0	49.6	49.0	47.2	46.6	47.0	45.5	45.2
특수형태근로	46.7	45.2	44.8	44.6	41.0	41.3	41.6	40.8	40.8	39.4	39.8	39.9	40.6
가정 내 근로	39.4	39.2	37.1	37.4	38.0	35.8	30.5	32.9	33.4	31.9	33.2	32.1	36.0
일일근로	45.8	43.9	42.8	43.0	42.0	40.9	41.7	39.9	40.7	40.4	39.7	39.1	38.4
시간제 근로	21.6	23.0	22.6	22.2	21.5	21.7	21.5	21.3	21.1	20.7	21.0	21.2	21.0

주 : 평소 근로시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3. 근속기간

○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3년 68.3개월에서 2014년 85.3개월로 나타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계산됨. 한편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009년까지 24개월 안팎에서 변동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함(표 Ⅳ-4 참조).

- 2014년 8월 현재 특수형태근로 >반복갱신>용역 >파견 >기간제 > 가정 내 근로>기대불가>시간제 근로 >일일근로의 순으로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일일근로는 특성상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함.

<표 Ⅳ-4>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 개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2.7	52.9	54.3	54.1	55.2	57.1	58.6	59.4	61.2	64.0	66.8	67.3
정규직	68.3	69.8	71.8	70.1	71.3	73.9	78.7	77.3	79.2	82.2	84.8	85.3
비정규직	20.5	24.1	23.9	25.1	26.3	24.3	21.2	23.6	26.5	27.7	29.6	29.6
한시적 근로	21.7	25.9	25.8	28.4	31.5	28.9	23.2	26.9	30.7	31.4	32.7	31.4
기간제	19.1	22.6	25.0	25.0	29.2	28.1	23.2	25.6	28.7	29.9	31.0	29.1
반복갱신	54.2	50.5	56.4	61.4	57.2	52.5	46.7	59.7	62.1	57.9	67.9	62.3
기대불가	16.2	14.7	13.6	13.9	13.5	16.1	15.6	12.8	18.0	22.2	21.8	19.8
비전형 근로	18.7	21.9	21.6	20.0	20.3	20.8	20.7	23.3	24.3	26.3	29.2	30.8
파견	24.9	26.7	28.5	24.0	25.1	29.0	25.5	30.0	35.1	33.0	34.2	30.5
용역	23.8	22.8	24.7	23.6	25.7	23.9	25.3	30.3	29.1	30.9	34.3	34.5
특수형태근로	31.0	37.1	38.5	32.9	35.2	39.8	39.7	45.1	49.2	54.2	60.7	69.0
가정 내 근로	11.5	16.5	13.6	14.0	15.9	10.5	12.2	14.2	11.2	16.4	23.5	26.0
일일근로	1.6	2.1	2.3	2.8	2.3	2.1	1.7	1.4	1.7	2.0	1.4	1.0
시간제 근로	10.4	11.5	10.7	12.3	11.4	11.8	12.0	13.4	15.9	17.2	18.8	1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Ⅳ-5>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4년 8월 기준)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22.9	9.4	13.2	20.2	14.2	20.1	100.0
정규직	13.2	8.3	13.0	21.8	17.0	26.7	100.0
비정규직	43.1	11.7	13.5	16.8	8.4	6.4	100.0
한시적 근로	35.7	13.9	15.2	20.0	9.2	6.0	100.0
기간제	37.5	13.8	15.4	19.3	8.8	5.1	100.0
반복갱신	14.8	10.3	14.5	27.5	15.3	17.5	100.0
기대불가	42.3	17.5	14.0	18.1	6.4	1.9	100.0
비전형 근로	49.7	8.2	10.2	15.2	8.8	7.9	100.0
파견	28.0	18.7	16.6	24.9	5.8	6.0	100.0
용역	27.2	14.6	16.6	23.3	12.5	5.9	100.0
특수형태근로	15.3	8.0	13.6	23.5	17.7	21.9	100.0
가정 내 근로	57.0	3.8	14.2	13.7	5.5	5.7	100.0
일일근로	97.7	1.0	0.6	0.1	0.3	0.3	100.0
시간제 근로	55.9	12.3	12.1	11.2	5.5	3.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Ⅴ. 비정규직의 복지

1. 사회보험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40.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39%대를 유지함. 2014년에는 38.4%로 전년대비 하락함. 세부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음(표 Ⅴ-1, Ⅴ-2, Ⅴ-3 참조).

<표 Ⅴ-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2.7	57.7	59.5	61.4	62.6	63.2	64.3	64.7	65.0	65.1	66.5	67.6	67.9
정규직	62.9	70.8	72.5	75.7	76.1	76.3	77.3	78.9	78.4	79.1	80.3	81.2	82.1
비정규직	25.7	30.5	37.5	36.6	38.2	40.0	39.0	38.2	38.1	38.2	39.0	39.2	38.4
한시적 근로	31.3	39.1	47.8	47.5	51.4	57.2	56.4	56.5	58.6	58.2	58.6	57.8	56.0
기간제	32.1	39.9	48.3	52.5	51.7	59.3	62.6	62.6	63.8	62.1	62.3	61.1	58.5
반복갱신	59.7	68.9	76.2	63.3	82.6	83.5	78.6	83.7	86.0	82.1	80.2	83.0	76.5
기대불가	6.7	13.4	13.8	16.2	16.6	13.5	14.2	14.7	14.2	15.8	18.0	19.6	21.3
비전형 근로	24.4	22.4	25.7	23.6	22.0	23.0	23.6	21.7	22.3	21.1	23.0	23.4	21.8
파견	53.5	52.3	62.8	60.0	66.6	66.2	70.5	73.2	67.1	67.1	64.0	63.8	69.1
용역	49.8	55.2	53.7	54.9	53.7	55.5	56.3	58.1	59.0	52.6	53.4	53.6	50.7
특수형태근로	24.2	22.1	26.1	21.2	10.0	9.1	6.9	0.5	0.4	3.4	3.8	4.5	2.8
가정 내 근로	12.0	4.9	13.8	1.4	2.1	1.4	1.7	8.3	7.7	7.6	5.8	17.5	9.2
일일근로	0.0	0.1	0.5	1.1	0.7	0.4	0.9	0.2	0.3	0.2	0.2	0.6	0.1
시간제 근로	2.0	2.1	2.4	2.1	3.2	3.3	6.4	7.4	9.3	11.0	12.2	13.4	14.6

주 :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는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로 응답하도록 가이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Ⅴ-2>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48.0	49.8	52.1	53.1	54.6	55.3	56.8	58.9	58.6	59.6	61.2	62.4	63.8
정규직	56.2	59.7	61.5	63.8	64.7	64.3	65.8	67.6	67.6	68.9	70.4	71.8	73.5
비정규직	26.2	29.2	36.1	34.5	36.3	39.2	39.2	42.7	40.4	41.6	42.7	43.0	43.4
한시적 근로	31.8	37.1	45.5	45.2	49.0	55.5	56.0	62.0	60.6	61.1	62.0	61.8	61.9
기간제	32.7	37.6	45.8	50.0	49.7	57.6	62.3	68.7	66.4	65.1	65.8	65.3	64.9
반복갱신	58.9	65.1	72.8	59.7	77.2	81.2	77.3	85.3	82.1	80.7	79.6	82.7	78.9
기대불가	9.1	14.5	14.0	15.1	15.5	12.7	14.4	18.1	17.0	21.5	23.7	25.0	26.7
비전형 근로	24.8	21.9	25.2	22.0	20.8	23.9	25.8	27.6	28.6	28.0	29.9	29.7	29.2
파견	55.2	52.6	63.7	59.6	65.1	67.9	72.3	77.1	71.7	72.8	70.2	70.7	77.9
용역	51.5	52.5	52.8	55.0	52.5	59.6	60.9	70.3	74.2	67.0	68.0	68.0	66.6
특수형태근로	24.3	20.8	24.1	16.8	7.7	7.9	7.5	2.3	2.0	4.5	5.8	5.6	3.6
가정 내 근로	11.0	4.9	13.8	1.4	1.4	1.4	1.7	7.7	8.8	8.8	5.7	17.1	9.2
일일근로	0.5	1.7	1.6	0.9	0.7	0.7	2.7	5.1	4.0	5.9	4.4	4.0	5.3
시간제 근로	3.1	3.0	3.6	2.2	3.2	3.7	6.3	9.1	10.6	13.4	14.8	17.2	19.5

주 : 2010년 이후 통계는 공식발표 통계와 상이한데, 이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차이가 있음.

- 한시적 근로는 기간제와 반복갱신 집단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해 정규직과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하락하고 있음.
-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06년 이후 증가추세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정한 추세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014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
- 비전형 근로의 경우 파견, 용역은 정규직과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크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의 경우 매우 큰 격차를 보임.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가입률이 2005년 이후 급감하는 특이한 추이가 있음.

-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Ⅴ-3> 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5.5	59.5	61.3	61.9	63.2	64.4	65.6	67.1	67.0	68.3	69.9	71.3	71.4
정규직	65.6	72.5	73.8	75.9	76.1	76.7	78.0	79.8	79.5	80.9	82.2	83.5	84.1
비정규직	28.8	32.6	40.1	37.7	40.0	42.5	41.5	43.4	42.1	44.1	45.4	46.2	44.7
한시적 근로	34.6	41.1	50.5	48.7	53.2	60.0	59.8	64.1	64.6	66.9	67.7	67.4	65.3
기간제	35.3	41.8	50.9	54.0	53.8	62.7	66.5	71.4	71.1	72.1	72.4	72.0	69.3
반복갱신	64.4	72.5	79.0	63.4	84.0	84.6	79.6	85.5	86.5	83.9	83.7	85.2	80.9
기대불가	8.3	15.6	17.4	16.6	16.8	15.8	17.2	17.4	17.4	21.5	24.1	24.7	25.1
비전형 근로	28.4	26.4	29.7	25.8	25.4	27.7	28.2	27.7	28.8	29.6	32.5	32.8	31.2
파견	54.4	55.1	66.0	61.1	66.3	67.4	71.9	75.7	72.0	74.8	70.0	73.7	77.2
용역	64.2	69.7	68.5	65.8	67.4	73.0	71.6	78.2	81.3	80.1	81.8	82.0	81.0
특수형태근로	26.8	24.4	28.0	20.8	9.7	8.7	6.4	1.2	0.6	4.1	5.6	5.0	2.8
가정 내 근로	13.5	5.1	14.9	0.6	1.4	1.4	0.9	8.8	7.0	7.6	5.8	18.5	9.2
일일근로	0.0	0.2	0.3	0.8	1.0	0.8	0.9	0.4	0.4	0.3	0.2	0.6	0.3
시간제 근로	2.7	2.7	3.7	2.3	3.8	4.0	6.1	8.8	10.6	13.0	14.6	17.9	17.8

주 :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로 응답하도록 가이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 다음으로 사회보험 외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이용가능한 근로복지 항목인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수급에서의 근로형태 간 차이도 분석하였음.

- 퇴직금은 2010년 12월 이전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유급휴가와 시간외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 비정규직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2년 20.6%에서 2014년 39.5%로 큰 폭으로 증가함(표 V-4 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퇴직금 수혜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혜율 격차는 더욱 커져, 2002년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8.7%포인트 높았으나 2014년에는 4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사회보험 추이와 유사하게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및 반복갱신근로, 비전형 근로 중 파견 및 용역근로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 왔음. 그러나 2014년에는 기간제, 반복갱신근로, 용역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다소 확대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2005년부터

<표 V-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48.7	52.9	54.0	54.1	54.6	57.5	61.4	61.5	63.1	64.7	66.7	68.2	68.3
정규직	59.3	66.4	67.4	68.6	67.9	70.3	74.5	76.9	76.6	78.4	80.2	81.8	82.0
비정규직	20.6	24.8	31.3	28.8	30.3	34.8	35.6	32.7	35.9	38.4	39.6	39.9	39.5
한시적 근로	25.2	31.9	40.1	38.3	41.7	50.1	51.7	47.9	55.2	59.0	59.5	58.8	58.2
기간제	26.7	33.1	41.2	43.8	43.0	52.9	57.9	53.3	60.7	63.0	63.5	63.3	61.5
반복갱신	51.2	61.2	70.7	58.4	70.5	75.7	76.4	80.7	82.9	84.5	80.2	81.1	78.5
기대불가	4.1	4.2	1.1	2.1	3.1	3.9	8.1	8.3	9.3	14.4	17.4	15.0	18.0
비전형 근로	19.9	17.7	21.4	16.8	16.2	20.6	24.3	24.2	26.1	26.8	29.7	29.9	28.9
파견	52.8	46.8	54.5	51.1	50.9	58.6	66.1	64.3	66.7	71.6	67.9	70.4	72.0
용역	39.7	42.4	47.9	44.3	47.2	55.4	60.5	69.7	73.8	73.5	75.9	77.1	74.6
특수형태근로	19.3	17.0	19.2	10.8	1.6	3.4	6.4	0.7	0.5	1.5	2.0	2.0	2.8
가정 내 근로	9.4	4.2	12.6	1.0	1.0	0.4	1.7	7.0	4.3	7.6	5.1	12.3	5.4
일일근로	0.0	0.1	0.2	0.1	0.1	0.3	0.4	0.3	0.2	0.1	0.6	0.2	0.4
시간제 근로	1.5	1.8	2.0	1.8	1.6	1.9	3.7	5.5	6.6	9.5	10.1	12.3	13.1

주 : 근로형태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급격히 감소하는 특이한 추이를 보임.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함.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최근 들어 증가함.

○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정규직 응답자의 비중은 2002년 59.6%에서 2014년 83.5%로 23.9%포인트 상승함. 비정규직 중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도 2002년 19.0%에서 2014년 39.7%로 20.7%포인트 상승함(표 V-5 참조).

-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은 정규직과 함께 증가추세이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2002년 40.6%포인트에서 2014년 43.8%포인트로 더욱 커짐.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근로는 정규직과 격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파견근로는 2002년 43.5%에서 2014년 65.1%로 상승,

<표 V-5>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48.5	51.3	51.6	52.1	53.3	55.9	56.6	61.0	64.7	65.0	66.6	69.5	69.3
정규직	59.6	65.5	65.8	67.4	67.5	69.8	71.2	77.7	79.3	80.4	81.8	83.6	83.5
비정규직	19.0	21.9	27.5	25.5	27.7	31.1	27.9	29.8	35.5	35.5	36.4	40.2	39.7
한시적 근로	22.4	28.1	35.2	34.2	38.4	44.8	41.1	42.4	52.3	51.8	51.7	54.9	53.8
기간제	23.4	28.8	35.0	38.9	38.5	46.0	45.3	46.8	56.1	53.6	53.5	57.1	55.0
반복갱신	45.1	58.2	66.5	54.3	69.2	72.4	66.7	74.8	81.3	77.6	76.4	78.7	75.0
기대불가	2.6	3.1	1.2	1.7	5.3	5.0	5.6	8.4	13.9	20.8	21.0	25.8	27.8
비전형 근로	18.6	14.9	17.8	13.4	12.6	15.6	14.9	20.0	24.4	23.7	26.4	29.6	29.4
파견	43.5	41.9	46.0	48.3	40.6	48.3	48.4	57.2	67.9	60.6	61.0	64.9	65.1
용역	33.8	32.1	35.9	30.4	34.1	38.0	36.1	52.2	61.8	57.0	57.6	63.2	61.6
특수형태근로	20.0	16.0	18.0	10.5	2.3	4.6	3.6	3.6	4.3	7.9	10.9	14.8	16.9
가정 내 근로	9.4	3.9	10.9	1.5	1.7	0.4	0.8	8.5	4.7	7.6	6.4	8.5	2.3
일일근로	0.1	0.2	0.0	0.1	0.5	0.8	0.0	0.7	1.6	1.8	2.0	3.7	4.5
시간제 근로	1.7	1.3	1.8	1.8	2.0	3.1	3.6	8.8	11.2	12.4	12.7	17.3	16.5

주 : 근로형태별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용역근로는 같은 기간에 33.8%에서 61.6%로 상승해 정규직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도 2002년 23.4%에서 2014년 55.0%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는 28.6%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함.
- 특수형태근로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6년 급격히 줄었으나 2012년 10%로 진입한 이후 2014년에는 16.9%로 빠르게 증가함.
- 시간제 근로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2014년 기준 16.5%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유급휴가의 수혜율은 2013년 대비 2014년 정규직은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표 V-6 참조).

<표 V-6>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45.8	45.0	43.7	49.8	52.8	57.0	58.7	56.0	58.0	60.0	60.2
정규직	58.2	58.0	55.0	61.7	65.4	70.6	71.3	69.2	71.0	73.0	73.7
비정규직	24.6	22.7	23.1	28.7	28.0	31.7	33.6	30.5	32.1	33.0	32.0
한시적 근로	31.8	30.7	31.9	41.9	41.5	47.8	52.7	47.7	49.3	49.7	47.7
기간제	31.4	34.5	32.8	44.7	46.1	54.6	58.9	52.2	53.2	53.8	51.1
반복갱신	57.6	49.5	51.7	61.2	65.6	67.2	75.8	63.0	65.3	68.5	63.7
기대불가	5.1	2.8	4.8	3.2	5.4	4.5	6.2	7.7	11.4	10.2	10.1
비전형 근로	14.3	11.0	10.8	14.2	15.5	17.6	21.7	17.9	19.9	21.3	20.8
파견	43.4	40.2	38.9	45.3	50.0	58.6	67.2	55.3	54.2	58.6	58.9
용역	25.4	25.0	28.8	35.6	37.5	47.7	56.8	45.8	47.8	51.7	51.0
특수형태근로	15.0	8.6	2.1	3.5	4.0	0.3	0.8	1.7	1.8	1.9	3.1
가정 내 근로	11.2	1.0	0.4	0.4	1.7	5.5	2.3	5.6	2.6	6.7	2.8
일일근로	0.1	0.1	0.0	0.1	0.0	0.2	0.3	0.3	0.0	0.4	0.0
시간제 근로	1.6	1.4	2.1	2.3	2.4	4.3	6.0	5.3	6.8	9.1	8.2

주 : 1) 근로형태별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2004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2014년에는 파견근로과 특수형태근로를 제외하고 유급휴가 수혜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금이나 상여금과는 달리 정규직에서 2004년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임(표 V-7 참조).
- 2014년 기준 정규직의 58.8%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24.3%만 그렇다고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특수형태근로에서는 2006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V-7>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39.3	40.2	43.4	43.6	42.4	43.3	42.4	43.3	44.4	43.7	45.2	47.5	47.6
정규직	48.4	52.1	55.8	56.6	53.9	54.2	53.5	55.5	55.4	55.0	56.2	58.4	58.8
비정규직	15.0	15.4	22.2	21.1	21.5	23.8	20.7	20.4	22.5	22.0	23.2	24.9	24.3
한시적 근로	18.4	19.7	28.3	27.8	29.6	34.3	30.2	28.4	33.0	32.2	33.8	35.3	34.5
기간제	18.9	20.0	27.7	31.0	29.4	35.1	33.6	31.5	35.0	33.3	35.4	37.3	36.2
반복갱신	33.4	42.1	54.2	45.8	53.7	55.9	47.2	51.1	57.9	50.1	48.2	52.2	47.0
기대불가	3.8	2.8	2.7	3.7	5.4	3.9	3.6	4.2	7.0	11.0	12.6	11.4	12.2
비전형 근로	13.4	9.7	14.0	11.3	9.6	12.3	11.2	13.3	14.4	13.5	14.5	15.6	15.2
파견	29.4	35.0	34.6	37.2	35.9	42.2	43.1	45.0	44.8	35.9	40.1	44.1	45.7
용역	22.5	19.6	26.6	27.9	25.5	30.2	24.8	32.0	34.3	31.8	31.3	33.8	32.6
특수형태근로	14.4	9.0	13.9	7.1	0.9	1.7	1.5	0.1	0.0	0.4	0.5	0.1	1.1
가정 내 근로	8.2	2.8	9.0	0.9	1.0	0.0	0.8	3.4	1.7	4.3	2.8	0.5	1.0
일일근로	1.3	0.8	2.1	1.7	1.1	1.3	1.5	3.1	3.2	4.1	3.8	5.3	4.0
시간제 근로	3.1	2.2	1.8	2.5	2.4	2.3	2.2	4.9	5.7	6.4	6.7	8.8	9.0

주 : 근로형태별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반복갱신, 기간제, 파견, 용역근로는 비교적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기준으로 단지 9.0%만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함.

○ 결론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전체와 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복지적용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근로형태에 따라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거나 작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유사하며, 기간제 근로 집단은 복지혜택 적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비전형 근로 중에서는 파견, 용역근로의 경우 기간제처럼 적용 및 가입 증가가 보이지만,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가입률과 적용률이 감소하였으며(상여금 수혜율은 2012년부터 10%대로 회복하여 상승세임), 일일근로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시간제 근로의 가입률, 적용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을 보면, 기간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에서 계약서 작성비중이 높았고, 이들 집단에서는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표 V-8 참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정규직은 2014년 현재 비정규직보다 계약서 작성비중이 낮음.
- 일일근로는 작성비중이 매우 미미했고, 시간제 근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4년 기준 42.3%만 작성함.

<표 V-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5.6	37.2	38.5	41.4	42.8	46.5	48.6	48.2	50.6	53.6	55.4	56.7
정규직	10.8	35.8	38.3	40.6	41.5	46.8	47.6	47.1	49.8	53.5	55.2	56.0
비정규직	25.7	39.5	38.8	42.8	45.1	46.1	50.3	50.3	52.0	53.7	55.9	58.1
한시적 근로	36.9	49.2	49.3	54.2	60.6	61.8	69.6	72.7	74.0	75.9	76.0	77.0
기간제	44.2	53.4	57.1	57.3	66.0	71.1	79.4	83.1	82.3	83.2	83.6	84.6
반복갱신	16.2	66.2	44.9	72.2	72.3	70.6	79.1	77.7	79.2	77.6	81.1	75.4
기대불가	3.0	10.4	15.1	15.9	16.9	15.8	13.8	15.9	19.1	25.0	21.8	26.9
비전형 근로	15.1	31.5	28.2	32.8	34.5	37.7	38.0	39.8	39.8	43.0	44.7	47.5
파견	30.4	59.3	55.8	66.9	66.2	75.5	79.0	83.0	77.5	76.9	81.9	84.4
용역	41.8	59.3	60.4	64.1	70.3	70.1	76.1	80.6	80.8	81.7	82.9	85.9
특수형태근로	12.7	37.7	30.9	32.5	32.7	39.2	35.3	38.4	38.2	43.2	45.9	50.3
가정 내 근로	2.8	10.0	7.0	5.4	4.6	5.8	7.5	8.3	12.8	7.0	11.4	10.9
일일근로	0.4	3.7	3.0	4.4	4.0	4.2	4.5	2.2	3.4	3.6	4.4	8.1
시간제 근로	6.8	14.3	14.5	16.5	17.2	19.3	23.7	26.7	31.7	33.0	38.6	42.3

주 : 2003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직업훈련 경험은 2014년 정규직 57.0%, 비정규직 43.1%로 약 13.9% 포인트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표 V-9 참조).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와 반복갱신은 2014년 기준 각각 56.9%, 54.9%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파견근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해도 있었으며 2014년에는 정규직보다 높은 61.8%로 큰 폭으로 상승함.
- 특수형태근로는 일관되게 전 시기에 걸쳐 정규직보다 직업훈련 경험이 더 많았음.
- 용역근로는 약 10~17%포인트 정도 정규직보다 훈련경험이 낮았으며, 기대불가,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직업훈련 경험을 보임. 시간제 근로 또한 낮은 수준이지만 큰폭의 상승세를 보임.

<표 Ⅴ-9>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28.0	24.9	26.8	30.8	31.2	35.5	37.2	46.9	52.5
정규직	31.2	28.4	30.4	34.7	34.6	39.5	41.4	51.5	57.0
비정규직	22.2	18.6	19.8	23.5	24.4	27.8	28.8	37.3	43.1
한시적 근로	23.7	21.3	21.2	25.2	28.4	32.5	33.9	45.4	52.3
기간제	23.8	22.5	23.8	28.0	32.3	35.9	37.3	48.5	56.9
반복갱신	37.9	29.8	25.6	30.4	32.1	33.7	34.6	56.9	54.9
기대불가	7.6	4.5	7.1	7.9	6.4	10.5	10.5	17.6	19.2
비전형 근로	21.9	18.1	20.6	24.8	24.4	27.8	28.1	34.2	38.9
파견	39.3	27.7	30.7	42.7	33.9	35.0	35.8	46.9	61.8
용역	14.5	16.3	14.3	21.6	23.6	29.4	27.8	34.3	40.3
특수형태근로	46.0	37.9	49.5	50.5	51.8	59.1	61.7	69.3	75.3
가정 내 근로	8.0	1.9	1.1	9.5	8.3	8.3	6.4	5.3	3.6
일일근로	2.4	2.1	2.5	4.7	4.0	5.2	5.4	7.7	9.7
시간제 근로	11.3	8.6	8.4	14.9	14.5	16.5	18.0	26.1	32.4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Ⅵ.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 <표 Ⅵ-1>은 2014년 8월 자료를 이용해 근로형태별 취업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6.1%, 안정적인 일자리여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5.1%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22.8%, 10.4%에 불과함.

- 대신 비정규직 취업자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6.7%로 높게 나타남.

○ 세부형태별로 보면, 파견, 반복갱신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취업했다는 응답이 각각 35.0%, 32.7%로 정규직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일일근로(5.3%), 가정 내 근로(7.8%), 기대불가(12.3%), 특수형태근로(16.8%), 시간제 근로(18.0%)에서는 낮게 나타남.

- 안정적이어서 취업했다는 응답은 반복갱신에서만 30.4%로 정규직과 비슷했을 뿐 일일근로(0.3%), 시간제 근로(1.7%), 가정 내 근로(1.7%), 특수형태근로(3.4%), 기대불가(3.8%)에서는 그런 응답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기간제(15.6%), 파견(13.7%), 용역(13.1%)도 정규직보다 20~22%포인트 해당 응답이 낮았음.
- 근무시간의 신축적 조절이 가능해서 선택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5%내외의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가정내 근로와 시간제 근로가 각각 12.0%, 6.2%로 전년대비 각각 7.9%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근로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13.2%)하거나 학업을 병행(14.6%)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가정 내 근로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응답이 20.5%로 높게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30.0%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표 Ⅵ-1> 근로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4년 8월)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근로	
근로조건에 만족	31.8	36.1	22.8	27.8	29.5	32.7	12.3	16.9	35.0	26.0	16.8	7.8	5.3	18.0
안정적인 일자리	27.1	35.1	10.4	15.7	15.6	30.4	3.8	6.0	13.7	13.1	3.4	1.7	0.3	1.7
당장 수입이 필요	23.4	17.1	36.7	32.8	31.1	20.0	55.5	51.0	33.3	47.0	28.8	39.0	75.3	33.2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4.4	3.6	6.3	5.7	5.2	3.9	11.2	6.7	5.3	6.2	6.4	4.0	7.7	6.6
전공·경력 부합 일자리 없어	1.2	1.1	1.4	1.5	1.6	0.7	1.3	1.0	2.5	1.0	1.1	0.0	0.7	1.4
경력관리용	4.0	3.8	4.3	6.0	6.4	5.3	3.5	2.1	4.2	3.0	2.3	1.4	0.7	2.8
육아 가사 병행	2.2	0.6	5.4	3.3	3.4	2.6	3.5	3.6	3.1	1.9	5.8	20.5	2.6	13.2
학업, 직훈 등 병행	2.2	0.5	5.6	3.8	3.9	1.1	5.3	1.3	0.0	0.4	0.0	2.9	2.7	14.6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2.2	1.3	3.9	1.1	0.9	1.8	1.8	8.9	0.6	0.6	30.0	7.1	3.2	1.7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1.2	0.5	2.8	1.8	1.9	1.3	1.7	2.2	2.4	0.2	5.4	12.0	1.3	6.2
기 타	0.3	0.3	0.4	0.5	0.6	0.3	0.2	0.3	0.0	0.4	0.0	3.6	0.1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2014년 8월 현재 50.3%로 정규직 23.5%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표 Ⅵ-2 참조).

- 통계청은 '당장 수입이 필요',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전공·경력 부합하는 일자리 없어' 취업했다는 응답자와 '경력관리용', '육아 가사 병행', '학업, 직훈 등 병행',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기타'의 이유로 취업한 응답자 중 비자발적으로 취업했다는 사람들을 합쳐 비자발적 취업자로 정의함.
-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60% 수준에 육박했으나 2014년에는 50.3%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대불가, 용역, 가정 내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에서 꾸준히 50%를 넘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취업함. 이들 중 일일 근로를 제외하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하락함.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유사하며, 기간제, 파견, 특수형태근로에서 50%보다 낮은 비자발적 취업률을 보였음.

○ 다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비자발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표 Ⅵ-2>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31.7	30.1	38.4	35.0	34.6	33.7	32.2	32.4	32.2
정규직	22.4	21.0	27.4	23.0	24.7	23.9	22.8	23.4	23.5
비정규직	48.5	46.2	59.8	57.3	54.5	52.4	51.0	51.2	50.3
한시적 근로	42.7	38.6	50.5	51.2	47.2	44.9	43.8	44.9	45.0
기간제	43.2	36.9	44.4	46.8	44.1	42.5	41.0	42.2	43.1
반복갱신	15.7	17.5	29.2	25.6	20.5	24.7	24.8	23.9	28.6
기대불가	68.2	73.3	91.3	83.5	79.7	75.5	76.6	76.2	72.6
비전형 근로	62.9	59.9	73.1	67.1	63.9	64.6	62.7	63.6	62.8
파견	41.6	34.8	44.3	36.2	37.6	43.4	39.8	46.6	41.3
용역	53.3	48.9	56.2	58.1	58.0	56.4	57.5	57.1	56.5
특수형태근로	48.5	43.0	73.3	58.3	45.6	45.9	45.6	47.0	43.0
가정 내 근로	65.4	58.6	81.8	61.1	56.4	57.9	61.9	57.5	55.6
일일근로	91.7	89.3	93.4	88.7	88.0	87.9	85.1	86.6	87.4
시간제 근로	52.9	51.9	67.7	62.0	60.5	55.3	56.0	55.6	52.3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Ⅶ.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 <표 Ⅶ-1>의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조직률이 5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음.

- 정규직의 조직률은 15~17%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4~5% 수준을 유지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2%대로 하락한 이후 2014년 3.1%를 기록함.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 집단의 조직률이 가장 높으며, 비전형 근로 중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와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 집단은 2014년 기준으로 0~1%대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음.

<표 Ⅶ-1>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1.4	12.4	11.8	11.3	12.1	12.7	12.2	11.4	10.9	11.5	12.4	12.5
정규직	15.3	16.7	15.9	15.1	16.0	17.0	17.3	15.7	15.2	15.8	17.0	16.9
비정규직	3.4	5.2	4.6	4.3	5.1	4.4	2.5	2.8	2.6	2.9	3.0	3.1
한시적 근로	4.0	5.9	5.8	5.9	7.3	6.4	3.5	4.1	3.9	4.5	4.4	4.6
기간제	3.9	4.9	6.0	5.0	6.8	6.9	3.9	3.8	3.4	4.2	4.1	4.2
반복갱신	10.6	14.9	13.3	15.4	14.5	11.0	6.8	12.4	11.6	12.1	13.1	11.8
기대불가	0.4	0.8	0.7	1.6	1.3	1.2	0.3	0.5	0.7	0.8	1.0	1.4
비전형 근로	2.6	4.2	2.8	1.9	2.3	2.4	1.5	1.8	1.4	1.6	1.4	1.4
파견	5.9	5.1	8.8	5.7	5.0	7.1	3.1	3.9	4.6	1.6	2.9	4.2
용역	1.1	3.3	4.8	4.9	5.4	4.0	3.5	4.9	3.7	4.9	3.9	3.5
특수형태근로	5.1	7.6	3.4	0.8	1.4	1.9	0.5	0.5	0.1	0.0	0.0	0.0
가정 내 근로	0.7	3.2	0.9	0.2	0.0	0.0	1.0	0.0	0.0	0.0	1.4	1.0
일일근로	0.5	0.4	0.0	0.1	0.0	0.5	0.3	0.1	0.0	0.0	0.0	0.0
시간제 근로	0.3	0.5	0.2	0.4	0.2	0.3	0.4	0.2	0.3	0.3	0.7	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특수형태근로의 조직률은 2004년에는 반복갱신 다음으로 높은 7.6%였으나 2006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12년부터 0%를 기록함.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2014년 기준 정규직 30.6%, 비정규직 17.6%), 기간제나 반복갱신의 경우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표 Ⅶ-2 참조).
- 노동조합 접근성이 낮아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했음.
- 비전형 근로와 시간제 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에서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Ⅶ-2>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22.1	23.6	23.2	23.0	24.8	25.8	26.3	24.7	24.0	25.1	26.1	26.4
정규직	26.9	28.4	28.3	27.8	29.3	30.7	30.7	28.9	28.6	29.6	30.2	30.6
비정규직	12.1	15.3	14.6	14.3	16.7	16.4	18.3	16.2	15.1	16.3	17.7	17.6
한시적 근로	14.7	18.2	17.8	18.3	22.8	23.0	26.1	24.2	22.5	24.7	25.9	25.3
기간제	15.4	18.5	19.5	18.1	24.1	26.2	30.1	27.3	24.7	27.2	28.7	27.8
반복갱신	22.5	28.7	24.6	30.9	29.1	24.0	23.1	25.8	25.4	26.2	26.2	25.2
기대불가	4.7	5.5	6.3	6.0	7.5	8.1	5.5	7.3	6.7	6.6	7.0	8.7
비전형 근로	8.6	11.3	10.2	7.3	8.8	8.1	7.6	7.4	6.4	7.0	8.4	8.9
파견	17.7	18.4	23.3	14.9	16.8	19.2	17.8	18.4	17.1	13.3	23.6	16.8
용역	7.1	10.9	13.3	9.5	13.8	10.3	9.3	12.6	9.2	10.2	10.3	10.6
특수형태근로	14.8	17.5	15.3	9.9	10.2	9.3	9.7	6.7	8.0	9.3	10.7	15.2
가정 내 근로	1.6	8.0	3.2	2.2	0.5	1.5	4.3	1.3	1.1	2.2	5.2	2.6
일일근로	2.2	3.1	2.0	1.9	2.1	3.2	2.5	1.7	1.1	1.4	1.7	1.5
시간제 근로	5.2	6.5	6.2	6.1	8.1	11.6	12.8	12.6	11.1	12.1	14.0	1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2014년 기준 정규직은 81.1%가 가입자격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29.0%만 가입자격이 있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자격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표 Ⅶ-3 참조).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유사하며, 용역은 47.0%, 파견은 43.1%가 가입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의 노조가입자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표 Ⅶ-3>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74.9	73.3	71.8	71.3	71.5	70.5	66.4	68.1	69.6	68.9	70.8	69.9
정규직	81.6	80.5	79.2	78.2	79.0	78.6	79.7	78.5	80.0	79.3	81.9	81.1
비정규직	43.9	50.8	47.0	47.2	47.8	40.8	24.6	31.0	31.7	31.3	31.6	29.0
한시적 근로	43.1	49.9	49.2	51.0	50.9	43.1	24.1	30.4	32.5	32.4	32.3	30.4
기간제	41.5	42.7	47.2	47.0	46.3	41.2	23.3	26.5	27.4	29.6	28.7	26.5
반복갱신	62.8	73.8	76.7	68.9	73.6	65.9	45.0	66.8	76.3	63.9	75.1	67.3
기대불가	13.6	27.8	22.1	29.2	26.2	24.0	17.3	24.3	19.2	21.3	28.0	23.4
비전형 근로	51.0	54.7	37.7	37.8	39.3	40.5	33.6	40.6	33.1	33.4	30.9	23.8
파견	61.3	49.3	41.2	54.4	53.8	50.9	36.1	35.8	47.5	36.8	42.5	43.1
용역	39.0	62.1	57.4	68.9	57.2	52.8	51.3	57.6	53.3	57.2	50.4	47.0
특수형태근로	55.2	56.6	29.3	13.6	20.8	30.4	15.7	21.1	4.9	6.7	2.1	0.0
시간제 근로	16.6	13.5	8.1	10.1	8.8	8.5	10.2	7.4	6.1	5.0	8.9	11.8

주 :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Ⅶ-4>에서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조합원 비중 추이를 보면,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함을 알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는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2004년 77%가 가입했지만 200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2년 이후 0%를 보임.

- 시간제 근로는 가입자격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하는 특징이 있음.

<표 Ⅶ-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69.0	71.9	70.5	68.9	68.0	69.9	69.5	67.9	65.3	66.4	67.1	67.6
정규직	69.7	73.0	71.1	69.8	68.9	70.5	70.8	69.1	66.5	67.3	68.7	68.2
비정규직	63.0	66.7	67.2	63.8	63.7	65.7	56.0	56.7	54.5	57.6	52.9	61.4
한시적 근로	63.4	65.1	65.9	63.2	63.3	64.6	56.1	56.5	53.0	56.3	52.4	60.1
기간제	60.9	62.3	65.3	58.4	61.2	63.5	55.9	53.3	50.4	52.8	49.3	57.0
반복갱신	74.6	70.5	70.7	72.3	67.7	69.8	65.0	72.1	59.9	72.4	65.8	69.5
기대불가	56.5	54.3	50.6	89.6	67.8	62.6	32.0	25.9	57.1	55.4	54.3	69.5
비전형 근로	59.0	67.9	73.0	70.2	66.5	72.7	57.8	60.0	66.8	69.0	56.2	67.7
파견	54.7	55.7	92.0	70.8	55.4	72.8	48.1	59.0	56.3	33.3	29.3	58.6
용역	40.6	49.3	62.5	74.5	69.2	72.9	72.8	67.8	74.3	84.3	74.2	71.3
특수형태근로	62.4	77.0	76.3	60.2	68.1	67.5	35.1	32.5	29.2	0.0	0.0	0.0
시간제 근로	30.0	61.7	38.5	58.6	34.9	35.0	32.6	25.7	37.4	41.8	53.0	51.6

주 :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기대불가의 경우 수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 표

(각 연도 8월 기준)

※ 제9차 표준산업분류와 제6차 표준직업분류가 2004년 이후부터 제공되어 2002~03년은 제외함.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성	남 성	8,489	8,682	8,909	9,235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여 성	6,096	6,286	6,442	6,647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연령	15~29세	4,080	4,010	3,891	3,892	3,756	3,663	3,627	3,655	3,586	3,542	3,672
	30~39세	4,446	4,516	4,655	4,637	4,733	4,694	4,757	4,789	4,800	4,793	4,801
	40~49세	3,581	3,759	3,888	4,100	4,216	4,354	4,540	4,647	4,663	4,844	4,867
	50~59세	1,722	1,869	2,032	2,252	2,388	2,562	2,852	3,058	3,241	3,480	3,710
	60세 이상	756	814	885	1,002	1,011	1,205	1,272	1,360	1,443	1,581	1,726
학력	중졸 이하	2,716	2,676	2,677	2,666	2,552	2,639	2,668	2,665	2,595	2,510	2,464
	고졸 이하	6,401	6,534	6,582	6,659	6,602	6,603	6,807	6,824	6,877	6,968	7,315
	전문대졸	1,748	1,864	1,968	2,150	2,248	2,335	2,441	2,614	2,745	2,843	2,805
	대졸 이상	3,719	3,894	4,125	4,407	4,702	4,902	5,131	5,408	5,517	5,919	6,193
산업	농어업	143	146	125	146	143	162	170	174	136	135	126
	광 업	11	14	13	17	22	20	19	11	13	16	13
	제조업	3,496	3,433	3,365	3,360	3,352	3,222	3,482	3,448	3,560	3,615	3,831
	전기 등	69	68	74	77	89	95	77	70	76	96	82
	하수 등	41	50	53	56	62	63	64	70	70	70	83
	건설업	1,300	1,327	1,353	1,393	1,396	1,324	1,388	1,396	1,315	1,351	1,360
	도소매	1,817	1,850	1,877	1,940	1,891	1,931	2,016	2,097	2,151	2,123	2,274
	운 수	622	636	663	677	666	674	694	722	732	761	763
	숙박음식	1,063	1,116	1,100	1,175	1,145	1,102	1,133	1,095	1,135	1,237	1,304
	출판 등	540	566	589	613	566	609	600	658	631	650	634
	금융보험	686	690	734	744	774	715	780	826	799	848	805
	부동산임대	264	314	293	298	287	302	327	308	313	336	349
	전문과학	484	509	554	596	646	721	734	851	904	863	883
	사업서비스	658	720	796	936	927	912	1,023	1,089	1,089	1,094	1,100

산업	공공행정	758	780	815	800	856	1,178	964	986	967	984	974
	교 육	1,209	1,255	1,344	1,366	1,420	1,468	1,414	1,350	1,376	1,407	1,428
	보건사회복지	549	581	631	678	776	943	1,123	1,237	1,327	1,486	1,638
	예술 및 여가	173	221	240	222	277	231	229	249	251	258	246
	협회, 개인서비스	571	543	582	611	652	656	658	714	719	731	776
	가구내 등	105	122	130	160	140	138	139	149	160	174	91
	국 제	24	26	19	18	17	13	14	8	10	6	16
직업	관리자	257	287	292	360	333	349	388	379	370	312	338
	전문가	2,694	2,776	3,071	3,309	3,507	3,556	3,689	3,860	3,869	4,151	4,185
	사무직	3,103	3,167	3,150	3,184	3,337	3,373	3,549	3,768	3,836	3,951	4,043
	서비스	1,352	1,429	1,425	1,429	1,540	1,506	1,548	1,575	1,651	1,667	1,786
	판 매	1,341	1,353	1,378	1,427	1,396	1,448	1,475	1,456	1,549	1,557	1,644
	농업숙련	55	58	49	67	50	58	67	62	56	56	47
	기능원 등	1,625	1,651	1,659	1,636	1,658	1,572	1,630	1,606	1,594	1,600	1,605
	기계조작 등	1,839	1,811	1,846	1,813	1,720	1,722	1,820	1,865	1,979	2,085	2,180
	단순노무직	2,318	2,437	2,480	2,658	2,564	2,895	2,882	2,938	2,830	2,862	2,949
규모	1~4인	2,809	2,974	3,084	3,172	3,139	3,058	3,196	3,355	3,398	3,481	3,576
	5~9인	2,447	2,484	2,575	2,698	2,791	2,740	2,905	2,977	3,054	3,203	3,292
	10~29인	3,150	3,186	3,267	3,531	3,593	3,715	3,859	3,972	4,041	4,007	4,147
	30~99인	2,876	2,941	3,025	3,112	3,134	3,309	3,485	3,473	3,424	3,621	3,634
	100~299인	1,489	1,484	1,560	1,535	1,594	1,656	1,675	1,769	1,734	1,739	1,821
	300인 이상	1,814	1,899	1,840	1,833	1,853	2,002	1,928	1,963	2,082	2,190	2,306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00	7,926	8,243	8,763	9,107	9,472	10,151	10,710	11,203	11,842	12,165
	임시직	4,813	4,879	5,018	5,044	4,970	5,117	5,122	5,031	4,935	4,862	5,104
	일용직	2,071	2,164	2,090	2,075	2,027	1,890	1,775	1,769	1,595	1,536	1,507
근속 연수	1년 미만	5,752	5,880	6,120	6,099	6,014	6,228	6,371	6,290	6,129	5,971	6,069
	1~2년 미만	2,224	2,041	2,115	2,320	2,193	2,143	2,185	2,388	2,344	2,468	2,472
	2~3년 미만	1,192	1,354	1,220	1,323	1,400	1,290	1,445	1,333	1,540	1,452	1,573
	3년 이상	5,417	5,693	5,896	6,139	6,497	6,817	7,046	7,499	7,721	8,349	8,663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9,190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성	남 성	5,756	5,947	6,204	6,328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여 성	3,434	3,539	3,690	3,851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연령	15~29세	2,654	2,605	2,606	2,590	2,519	2,416	2,410	2,412	2,375	2,337	2,400
	30~39세	3,018	3,145	3,270	3,254	3,469	3,513	3,647	3,626	3,692	3,730	3,755
	40~49세	2,297	2,395	2,563	2,703	2,882	2,946	3,188	3,230	3,306	3,525	3,575
	50~59세	979	1,069	1,181	1,291	1,442	1,521	1,731	1,846	2,024	2,188	2,428
	60세 이상	243	272	275	341	346	329	387	401	426	514	541
학력	중졸 이하	1,206	1,157	1,190	1,154	1,137	1,030	1,140	1,112	1,109	1,049	1,027
	고졸 이하	3,991	4,039	4,177	4,165	4,173	4,091	4,330	4,239	4,274	4,372	4,635
	전문대졸	1,244	1,359	1,396	1,547	1,694	1,733	1,841	1,943	2,077	2,184	2,122
	대졸 이상	2,749	2,932	3,132	3,314	3,654	3,871	4,051	4,221	4,362	4,689	4,915
산업	농어업	35	32	28	47	46	53	50	54	44	52	49
	광 업	9	12	11	13	20	16	16	10	11	14	11
	제조업	2,680	2,723	2,688	2,670	2,796	2,699	2,962	2,911	3,061	3,112	3,331
	전기 등	53	55	63	68	81	86	69	61	64	83	70
	하수 등	32	36	40	43	44	47	50	60	56	57	69
	건설업	478	489	567	586	629	597	669	679	624	658	684
	도소매	1,162	1,197	1,263	1,290	1,258	1,296	1,394	1,450	1,496	1,497	1,642
	운 수	448	467	492	504	519	530	578	573	586	608	607
	숙박음식	610	576	662	718	712	681	700	654	682	731	741
	출판 등	371	414	430	450	412	478	475	522	494	499	499
	금융보험	384	369	356	367	427	401	463	483	479	513	466
	부동산임대	148	187	179	182	182	167	193	174	175	198	208
	전문과학	350	382	417	437	506	593	609	694	765	713	744
	사업서비스	148	162	166	184	167	191	216	222	224	251	264

산업	공공행정	588	610	622	604	651	654	640	699	686	702	691
	교 육	759	788	851	896	944	955	877	795	823	887	885
	보건사회복지	403	425	472	499	569	626	721	771	838	963	1,027
	예술 및 여가	95	119	136	120	160	133	133	120	127	139	134
	협회, 개인서비스	399	394	413	435	463	472	488	515	513	535	524
	가구내 등	23	25	23	52	57	37	49	61	64	79	39
	국 제	17	23	14	14	16	11	12	7	9	6	15
직업	관리자	209	244	244	297	289	306	340	335	315	273	297
	전문가	1,901	2,001	2,231	2,411	2,625	2,714	2,787	2,820	2,887	3,133	3,152
	사무직	2,390	2,485	2,440	2,457	2,684	2,742	2,905	3,084	3,148	3,246	3,351
	서비스	805	802	870	885	986	939	955	941	976	994	1,077
	판 매	705	713	748	739	714	746	775	743	799	831	893
	농업숙련	19	18	18	27	29	32	32	31	25	35	25
	기능원 등	888	936	947	951	988	930	1,010	986	1,000	1,051	1,051
	기계조작 등	1,414	1,432	1,474	1,418	1,386	1,389	1,506	1,509	1,637	1,695	1,779
	단순노무직	859	855	922	997	957	927	1,052	1,067	1,036	1,037	1,075
규모	1~4인	1,437	1,474	1,647	1,676	1,745	1,696	1,738	1,808	1,800	1,866	1,899
	5~9인	1,404	1,477	1,583	1,667	1,698	1,636	1,813	1,821	1,891	2,009	2,079
	10~29인	1,941	1,993	2,033	2,183	2,285	2,217	2,472	2,489	2,641	2,656	2,750
	30~99인	1,913	1,960	2,032	2,086	2,197	2,250	2,385	2,376	2,359	2,547	2,566
	100~299인	1,051	1,056	1,128	1,092	1,201	1,267	1,324	1,394	1,355	1,360	1,468
	300인 이상	1,444	1,524	1,471	1,476	1,532	1,659	1,631	1,626	1,776	1,857	1,937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88	6,413	6,639	6,931	7,498	7,829	8,272	8,651	9,108	9,726	10,047
	임시직	2,844	2,803	2,926	2,936	2,806	2,565	2,790	2,590	2,525	2,383	2,471
	일용직	258	269	329	313	354	331	300	274	190	186	182
근속 연수	1년 미만	2,617	2,630	2,938	2,883	2,857	2,628	2,980	2,869	2,830	2,696	2,737
	1~2년 미만	1,389	1,320	1,372	1,506	1,428	1,392	1,414	1,534	1,519	1,648	1,649
	2~3년 미만	800	909	839	882	1,001	905	1,020	919	1,086	1,019	1,112
	3년 이상	4,384	4,626	4,745	4,909	5,373	5,799	5,949	6,193	6,388	6,932	7,201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5,394	5,482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성	남 성	2,732	2,736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여 성	2,662	2,747	2,752	2,796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연령	15~29세	1,426	1,405	1,285	1,302	1,237	1,247	1,217	1,243	1,211	1,205	1,272
	30~39세	1,429	1,371	1,385	1,383	1,264	1,181	1,110	1,163	1,108	1,063	1,046
	40~49세	1,284	1,364	1,325	1,397	1,334	1,408	1,352	1,417	1,358	1,319	1,293
	50~59세	743	800	851	960	946	1,041	1,121	1,212	1,217	1,292	1,282
	60세 이상	512	543	611	661	664	876	885	959	1,017	1,067	1,185
학력	중졸 이하	1,510	1,519	1,487	1,511	1,415	1,609	1,529	1,553	1,486	1,461	1,437
	고졸 이하	2,410	2,496	2,405	2,495	2,429	2,513	2,477	2,585	2,602	2,596	2,680
	전문대졸	504	506	572	603	555	602	600	671	667	659	683
	대졸 이상	970	962	993	1,093	1,047	1,030	1,079	1,186	1,155	1,230	1,278
산업	농어업	108	114	97	99	97	109	120	121	91	83	77
	광 업	2	2	2	3	2	3	3	1	1	1	2
	제조업	816	710	677	690	555	523	520	538	499	503	500
	전기 등	16	13	11	9	8	9	8	9	12	13	12
	하수 등	9	14	12	13	17	16	14	10	15	13	14
	건설업	822	838	786	807	767	727	719	717	691	693	676
	도소매	656	653	614	650	633	634	623	647	655	626	633
	운 수	175	170	171	173	146	144	116	149	146	153	157
	숙박음식	452	540	438	457	433	421	434	441	452	507	563
	출판 등	170	152	159	163	154	130	125	136	138	151	135
	금융보험	302	321	379	378	346	314	317	343	319	336	339
	부동산임대	116	127	114	115	106	135	134	134	139	138	142
	전문과학	134	127	137	159	140	127	125	157	139	151	139
	사업서비스	510	559	631	752	761	721	806	867	865	843	836

산업	공공행정	171	170	194	196	206	524	324	287	282	282	283
	교 육	450	467	493	470	475	513	537	555	553	520	543
	보건사회복지	146	156	159	179	207	317	402	465	489	523	610
	예술 및 여가	78	102	104	102	117	99	97	129	124	119	111
	협회, 개인서비스	172	150	169	176	189	184	170	199	205	196	252
	가구내 등	82	96	107	108	83	101	90	88	95	96	52
	국 제	7	3	5	4	2	2	2	1	1	0	1
직업	관리자	48	43	48	63	43	43	48	44	55	39	41
	전문가	793	774	840	898	881	842	902	1,040	982	1,018	1,033
	사무직	713	682	711	728	653	631	643	684	688	706	692
	서비스	547	627	555	544	554	567	593	634	675	673	709
	판 매	636	641	630	688	682	702	700	713	750	726	751
	농업숙련	36	41	31	40	21	26	34	31	31	21	22
	기능원 등	737	715	712	686	670	642	621	620	594	549	553
	기계조작 등	424	379	373	395	333	332	313	357	342	390	402
	단순노무직	1,458	1,582	1,558	1,661	1,607	1,968	1,830	1,871	1,794	1,824	1,875
규모	1~4인	1,372	1,499	1,436	1,496	1,394	1,362	1,457	1,546	1,599	1,616	1,677
	5~9인	1,043	1,006	992	1,032	1,092	1,104	1,092	1,156	1,163	1,193	1,213
	10~29인	1,210	1,193	1,235	1,348	1,308	1,497	1,387	1,483	1,400	1,351	1,397
	30~99인	962	981	992	1,026	937	1,059	1,100	1,097	1,065	1,074	1,068
	100~299인	437	428	432	444	393	389	351	375	379	379	354
	300인 이상	370	375	369	358	321	343	297	337	305	333	36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12	1,512	1,603	1,832	1,609	1,643	1,878	2,058	2,096	2,117	2,119
	임시직	1,969	2,076	2,092	2,108	2,164	2,552	2,332	2,441	2,410	2,480	2,633
	일용직	1,813	1,894	1,762	1,762	1,673	1,559	1,475	1,495	1,405	1,349	1,326
근속 연수	1년 미만	3,135	3,249	3,182	3,216	3,157	3,600	3,391	3,421	3,300	3,276	3,332
	1~2년 미만	835	721	742	815	765	751	771	854	824	820	822
	2~3년 미만	392	445	381	442	399	385	426	414	454	433	461
	3년 이상	1,033	1,068	1,151	1,230	1,124	1,018	1,097	1,306	1,333	1,417	1,462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3,597	3,614	3,626	3,546	3,288	3,507	3,281	3,442	3,403	3,431	3,507
성	남 성	1,916	1,864	1,914	1,922	1,701	1,683	1,576	1,644	1,668	1,643	1,726
	여 성	1,681	1,750	1,712	1,625	1,587	1,824	1,704	1,798	1,735	1,789	1,781
연령	15~29세	1,068	1,057	989	939	864	875	805	798	732	741	766
	30~39세	943	902	945	924	813	722	672	734	732	672	659
	40~49세	803	842	800	776	718	738	690	729	707	703	690
	50~59세	476	483	521	517	507	573	562	603	622	663	655
	60세 이상	307	331	371	389	386	600	551	579	610	652	739
학력	중졸 이하	910	886	873	784	741	933	789	794	750	774	771
	고졸 이하	1,562	1,611	1,534	1,443	1,334	1,412	1,316	1,304	1,360	1,334	1,350
	전문대졸	381	385	442	472	425	436	400	480	467	446	460
	대졸 이상	744	733	778	848	788	726	776	864	826	877	926
산업	농어업	66	64	55	44	47	35	52	33	25	31	29
	광 업	2	2	1	2	2	2	2	62	1	1	2
	제조업	626	578	555	548	434	389	393	268	377	387	381
	전기 등	14	13	11	9	6	9	7	47	11	12	9
	하수 등	7	9	12	13	15	14	10	92	13	9	12
	건설업	489	459	435	354	307	234	189	199	203	193	212
	도소매	390	389	383	357	321	291	259	247	258	260	270
	운 수	106	116	125	119	107	105	73	87	106	108	106
	숙박음식	301	374	283	259	253	213	181	108	192	213	221
	출판 등	146	127	142	144	129	105	107	133	111	114	110
	금융보험	141	135	166	155	122	96	90	87	86	88	80
	부동산임대	81	96	83	80	72	92	85	122	96	101	112
	전문과학	108	106	120	138	127	116	111	132	121	131	118
	사업서비스	313	315	375	456	451	505	559	554	577	565	553

산업	공공행정	144	142	172	166	182	511	313	307	270	268	268
	교 육	322	334	331	314	322	334	355	381	361	349	350
	보건사회복지	132	138	140	156	178	268	322	346	412	407	487
	예술 및 여가	62	72	79	68	75	62	62	84	65	67	70
	협회, 개인서비스	102	95	107	111	104	94	89	64	94	93	105
	가구내 등	39	48	47	49	34	29	20	9	22	33	12
	국 제	6	3	5	4	2	0	1	1	1	0	1
직업	관리자	44	40	46	59	41	40	40	39	49	36	37
	전문가	616	602	640	686	684	613	654	775	726	763	770
	사무직	612	595	639	637	579	569	556	589	581	584	561
	서비스	367	428	379	334	326	318	318	340	343	338	333
	판 매	278	265	272	272	227	237	211	182	218	196	214
	농업숙련	25	25	22	23	14	16	18	17	19	16	16
	기능원 등	467	440	448	367	324	275	263	274	268	208	230
	기계조작 등	317	284	296	291	244	259	227	255	248	285	301
	단순노무직	872	936	883	876	849	1,180	994	970	952	1,006	1,045
규모	1~4인	777	871	779	679	652	572	548	572	599	628	643
	5~9인	663	605	634	574	587	575	516	573	577	608	625
	10~29인	794	776	823	862	803	986	884	922	883	846	884
	30~99인	686	685	703	723	617	742	775	773	752	742	736
	100~299인	350	353	353	383	327	321	284	296	312	309	286
	300인 이상	328	324	334	325	301	310	274	307	280	298	3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93	1,345	1,484	1,667	1,453	1,492	1,721	1,858	1,865	1,836	1,842
	임시직	1,243	1,272	1,238	1,220	1,267	1,589	1,266	1,318	1,271	1,320	1,393
	일용직	962	998	905	660	569	426	294	267	266	275	273
근속 연수	1년 미만	1,967	2,010	1,951	1,721	1,658	2,038	1,736	1,695	1,670	1,681	1,740
	1~2년 미만	592	522	526	586	529	510	519	575	540	542	532
	2~3년 미만	296	323	284	315	286	270	292	292	305	288	308
	3년 이상	741	759	865	924	815	689	734	881	889	920	927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2,491	2,728	2,722	2,531	2,365	2,815	2,494	2,668	2,714	2,761	2,749
성	남 성	1,348	1,483	1,466	1,408	1,273	1,364	1,211	1,265	1,318	1,340	1,341
	여 성	1,144	1,244	1,255	1,123	1,093	1,451	1,283	1,403	1,395	1,421	1,409
연령	15~29세	791	873	781	731	663	739	647	647	600	604	613
	30~39세	607	667	675	638	584	573	487	544	568	539	494
	40~49세	525	577	575	503	476	532	468	527	530	531	488
	50~59세	336	362	390	363	347	450	429	445	496	510	499
	60세 이상	233	248	301	296	295	522	463	504	520	577	655
학력	중졸 이하	635	611	653	564	505	727	610	631	610	631	635
	고졸 이하	1,078	1,197	1,159	997	912	1,099	968	975	1,037	1,048	1,004
	전문대졸	257	308	323	343	326	368	312	395	392	362	366
	대졸 이상	521	611	588	627	621	621	605	667	675	720	744
산업	농어업	57	54	50	37	34	25	39	19	18	21	17
	광 업	0	1	0	0	1	1	2	1	1	0	1
	제조업	371	401	365	345	278	277	247	266	259	279	264
	전기 등	9	10	10	6	5	9	6	6	8	9	7
	하수 등	4	7	10	10	13	12	8	8	12	7	7
	건설업	405	394	364	286	236	175	120	150	134	143	149
	도소매	225	244	261	207	197	180	145	138	171	173	166
	운 수	63	85	85	73	80	84	53	72	82	83	73
	숙박음식	166	214	190	133	106	111	70	86	104	118	128
	출판 등	111	107	110	117	105	79	84	95	80	88	90
	금융보험	102	116	126	117	98	80	65	75	69	70	57
	부동산임대	48	69	60	52	51	70	67	63	79	79	87
	전문과학	81	91	95	101	98	104	77	101	103	102	89
	사업서비스	246	268	310	375	387	450	505	532	525	513	497

산업	공공행정	120	122	151	136	142	502	299	267	262	264	262
	교 육	249	285	269	260	266	295	311	333	320	319	304
	보건사회복지	96	113	99	120	137	239	282	323	365	357	421
	예술 및 여가	48	54	63	49	58	51	46	57	55	55	51
	협회, 개인서비스	67	65	73	74	59	62	62	64	60	69	73
	가구내 등	21	24	30	29	13	9	5	9	6	12	5
	국 제	4	1	2	4	2	0	1	1	1	0	1
직업	관리자	31	34	36	41	32	32	32	30	40	28	29
	전문가	438	502	489	522	530	524	532	638	615	653	642
	사무직	433	489	489	483	444	508	454	472	487	484	459
	서비스	230	269	270	205	184	227	217	248	255	242	228
	판 매	166	171	182	159	147	156	123	111	140	134	132
	농업숙련	20	21	19	17	10	11	14	13	14	15	11
	기능원 등	357	360	350	260	226	201	175	190	181	153	163
	기계조작 등	181	197	186	186	174	199	162	189	191	227	224
	단순노무직	635	684	700	660	618	959	785	777	791	826	861
규모	1~4인	494	551	546	425	351	334	325	363	415	447	439
	5~9인	452	427	474	382	393	418	347	406	430	444	466
	10~29인	566	617	626	642	629	841	713	762	720	697	714
	30~99인	504	568	546	546	490	661	658	649	641	658	612
	100~299인	246	297	277	285	261	282	238	237	259	262	240
	300인 이상	230	268	253	251	241	279	214	251	248	252	278
종사상 지위	상용직	994	1,178	1,168	1,268	1,201	1,365	1,479	1,574	1,618	1,610	1,549
	임시직	685	725	750	751	765	1,196	856	925	905	964	1,012
	일용직	813	824	803	512	400	255	160	168	191	187	188
근속 연수	1년 미만	1,454	1,537	1,540	1,291	1,180	1,620	1,339	1,338	1,359	1,372	1,410
	1~2년 미만	386	375	382	400	377	414	377	432	420	441	424
	2~3년 미만	193	246	212	208	209	216	228	237	242	235	227
	3년 이상	459	570	587	632	599	565	550	661	693	713	689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580	302	465	555	374	170	305	339	289	259	353
성	남 성	369	171	272	333	202	104	168	188	167	132	202
	여 성	211	131	194	222	172	66	137	151	122	127	152
연령	15~29세	164	65	125	127	106	36	69	68	53	54	62
	30~39세	204	95	155	203	120	53	92	119	110	73	101
	40~49세	136	94	100	134	79	49	94	87	64	77	103
	50~59세	53	36	57	61	48	21	44	49	36	41	63
	60세 이상	22	13	28	30	21	11	7	16	26	15	24
학력	중졸 이하	79	60	68	56	42	25	25	30	30	26	35
	고졸 이하	238	135	161	211	147	57	105	115	111	81	134
	전문대졸	88	33	80	96	61	32	49	56	44	49	54
	대졸 이상	176	75	156	191	124	57	126	137	105	103	130
산업	농어업	3	3	1	1	1	3	2	1	1	1	4
	광 업	1	1	0	1	0	0	0	0	0	1	1
	제조업	163	79	104	133	84	31	66	61	50	41	69
	전기 등	4	2	2	4	1	0	1	2	3	3	2
	하수 등	3	2	1	2	1	1	1	1	1	2	3
	건설업	34	14	27	34	20	10	21	15	21	16	22
	도소매	78	44	53	83	48	16	30	40	27	32	39
	운 수	30	14	27	29	14	8	9	21	16	11	17
	숙박음식	22	39	16	19	13	7	10	12	12	11	14
	출판 등	32	12	25	25	17	18	17	15	28	20	14
	금융보험	33	11	31	31	11	9	21	25	13	15	17
	부동산임대	12	6	11	13	5	4	9	5	6	4	10
	전문과학	19	7	16	31	24	7	26	28	13	20	22
	사업서비스	42	10	41	48	35	23	23	28	26	28	36

산업	공공행정	10	4	12	12	20	2	7	5	5	2	2
	교 육	44	17	42	39	29	10	26	26	17	13	18
	보건사회복지	27	13	36	24	29	19	27	36	33	30	48
	예술 및 여가	8	9	3	7	4	1	3	5	4	3	6
	협회, 개인서비스	13	10	14	19	16	2	8	11	13	6	9
	가구내 등	2	2	0	0	2	1	0	1	1	0	0
	국 제	2	2	3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10	5	8	17	8	8	8	8	6	6	7
	전문가	142	54	114	144	104	44	93	95	72	71	88
	사무직	132	56	114	119	96	36	72	82	64	71	70
	서비스	30	44	23	27	22	10	20	21	21	21	30
	판 매	49	24	38	56	24	10	21	25	27	16	32
	농업숙련	1	1	1	1	0	2	0	1	1	0	2
	기능원 등	45	19	39	50	34	14	28	29	26	13	23
	기계조작 등	95	43	67	70	32	18	32	33	28	28	44
	단순노무직	76	57	62	71	54	28	30	45	43	33	58
규모	1~4인	51	58	48	67	50	15	25	26	29	23	39
	5~9인	82	53	66	80	66	26	47	55	46	36	57
	10~29인	133	53	97	124	78	44	69	83	80	76	93
	30~99인	134	54	124	135	84	39	76	85	72	53	82
	100~299인	93	38	61	79	49	22	37	41	37	32	35
	300인 이상	88	45	71	70	47	24	52	48	25	39	48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8	165	314	396	249	126	242	254	212	198	257
	임시직	169	118	144	137	110	39	57	78	75	55	88
	일용직	13	19	8	22	14	6	6	7	2	7	8
근속 연수	1년 미만	169	80	116	123	116	54	80	82	70	70	89
	1~2년 미만	107	49	68	103	58	21	48	62	53	32	51
	2~3년 미만	74	37	46	74	48	23	30	29	34	26	43
	3년 이상	231	135	235	256	152	72	147	166	132	131	170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526	585	439	460	549	521	481	436	400	412	405
성	남 성	199	209	177	180	226	215	197	191	183	171	184
	여 성	327	376	263	279	323	307	284	244	217	241	221
연령	15~29세	114	119	83	81	95	99	89	83	79	83	90
	30~39세	132	140	116	84	109	96	93	71	53	60	63
	40~49세	142	170	125	139	163	157	128	115	113	95	99
	50~59세	86	85	74	93	112	102	90	108	89	113	92
	60세 이상	52	70	42	63	69	67	81	58	65	61	60
학력	중졸 이하	196	215	152	163	193	181	154	133	110	117	101
	고졸 이하	247	279	214	235	275	255	242	214	212	205	212
	전문대졸	35	44	40	33	37	36	40	29	31	36	40
	대졸 이상	47	47	34	29	43	49	45	60	46	54	52
산업	농어업	7	6	5	6	12	8	12	13	6	10	8
	광 업	0	1	0	1	0	1	0	0	0	0	0
	제조업	93	98	86	70	72	80	80	76	69	66	48
	전기 등	1	0	0	0	0	0	0	0	0	0	0
	하수 등	0	1	1	1	1	1	1	0	0	0	1
	건설업	51	51	44	34	51	49	48	41	48	34	42
	도소매	87	101	69	67	76	96	84	69	60	55	66
	운 수	13	17	13	18	12	14	11	9	8	14	16
	숙박음식	113	121	78	107	134	95	102	88	76	85	80
	출판 등	3	8	7	2	7	8	6	3	3	6	6
	금융보험	5	8	8	7	12	7	4	7	4	3	5
	부동산임대	22	21	12	15	16	18	9	13	11	18	14
	전문과학	8	8	8	6	5	6	7	7	6	9	6
	사업서비스	25	37	24	33	30	33	31	31	26	24	19

산업	공공행정	14	15	10	18	20	7	8	3	3	2	5
	교 육	30	32	20	14	27	29	18	18	24	16	28
	보건사회복지	9	11	6	12	11	11	13	13	14	20	19
	예술 및 여가	6	9	14	12	13	10	13	11	6	10	13
	협회, 개인서비스	23	20	19	19	29	30	19	19	22	18	23
	가구내 등	16	21	18	19	18	20	15	16	16	20	6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3	0	2	1	1	0	1	1	2	2	2
	전문가	36	46	37	20	50	45	29	41	39	39	40
	사무직	47	50	36	36	38	25	29	36	31	29	32
	서비스	107	115	86	102	120	81	80	71	68	75	75
	판 매	62	70	52	57	57	72	67	46	50	46	50
	농업숙련	4	3	2	5	3	2	3	4	3	2	3
	기능원 등	66	62	59	57	63	61	60	55	60	42	45
	기계조작 등	41	44	43	36	39	42	33	33	28	30	33
	단순노무직	160	195	122	145	177	193	179	149	118	146	125
규모	1~4인	232	262	186	188	252	223	198	182	155	157	164
	5~9인	129	125	94	112	128	131	122	112	101	128	102
	10~29인	95	105	100	96	96	101	102	77	82	73	78
	30~99인	48	63	33	42	43	42	41	39	39	31	42
	100~299인	12	19	16	18	17	18	10	18	16	15	11
	300인 이상	10	11	10	3	13	7	8	7	7	8	7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1	2	3	3	1	0	30	35	29	36
	임시직	389	429	343	331	391	355	353	315	292	301	292
	일용직	136	155	94	125	155	166	128	91	73	81	76
근속 연수	1년 미만	345	393	294	307	362	363	317	275	241	239	242
	1~2년 미만	100	98	75	83	94	75	94	81	67	70	56
	2~3년 미만	30	39	27	32	29	31	34	27	29	27	38
	3년 이상	52	54	43	37	64	52	37	53	64	76	68

<부표 8> 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2,286	2,215	2,112
성	남 성	970	967	918	1,141	1,119	1,156	1,215	1,257	1,202	1,181	1,115
	여 성	978	941	1,015	1,067	1,018	1,127	1,074	1,170	1,084	1,034	997
연령	15~29세	337	283	223	267	238	239	217	218	218	181	180
	30~39세	494	466	433	454	439	449	396	384	327	326	298
	40~49세	516	534	558	633	604	672	625	660	600	560	508
	50~59세	331	364	413	499	502	542	631	678	644	657	627
	60세 이상	269	262	306	356	354	380	420	487	497	491	499
학력	중졸 이하	698	692	724	809	732	789	800	847	796	733	676
	고졸 이하	887	877	890	1,041	1,032	1,038	1,035	1,126	1,079	1,044	1,009
	전문대졸	137	128	133	141	143	182	195	180	168	184	183
	대졸 이상	227	211	187	218	231	274	258	274	243	254	244
산업	농어업	44	47	42	54	48	70	64	86	64	50	48
	광 업	0	0	1	1	1	1	1	1	0	0	0
	제조업	207	137	136	150	110	116	102	125	99	80	80
	전기 등	3	1	0	1	2	0	0	1	1	2	2
	하수 등	1	4	1	1	3	2	1	1	1	1	3
	건설업	348	389	356	458	465	499	524	508	483	494	456
	도소매	236	232	205	231	234	250	240	252	224	194	166
	운 수	77	53	46	53	38	37	35	43	34	40	47
	숙박음식	89	98	84	98	61	92	74	92	78	73	89
	출판 등	30	24	17	27	31	31	21	21	29	22	15
	금융보험	180	199	224	233	233	227	230	240	231	251	265
	부동산임대	33	29	33	31	30	48	55	48	43	29	22
	전문과학	28	22	15	20	9	8	12	12	12	9	13
	사업서비스	433	458	531	647	670	634	692	746	743	728	690

산업	공공행정	21	13	13	14	11	17	10	7	12	14	5
	교 육	89	72	91	77	72	87	91	84	77	65	64
	보건사회복지	8	9	10	7	7	16	22	29	25	34	26
	예술 및 여가	15	19	14	12	20	15	12	23	20	17	11
	협회, 개인서비스	62	43	45	44	59	75	61	64	69	67	89
	가구내 등	46	55	71	49	33	57	41	43	39	45	23
	국 제	1	1	0	0	0	0	1	0	0	0	0
직업	관리자	7	6	4	8	3	6	9	6	6	3	2
	전문가	152	124	142	148	125	146	142	151	137	111	101
	사무직	107	76	52	74	63	74	82	74	76	87	71
	서비스	141	137	124	137	128	146	134	150	160	130	143
	판 매	358	368	356	406	429	433	419	449	433	412	417
	농업숙련	13	16	10	17	7	10	17	16	12	9	7
	기능원 등	300	299	297	348	365	403	389	379	349	342	338
	기계조작 등	139	112	99	124	118	99	114	137	133	159	128
	단순노무직	731	770	849	947	899	965	983	1,065	979	962	905
규모	1~4인	549	554	593	678	592	633	690	745	729	724	695
	5~9인	382	385	354	442	468	488	489	532	518	475	434
	10~29인	480	453	480	571	592	620	573	632	573	532	529
	30~99인	366	357	356	387	375	410	416	396	364	383	357
	100~299인	116	103	105	89	85	93	84	89	79	74	73
	300인 이상	55	55	44	42	25	39	36	32	23	26	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373	288	286	390	370	457	530	565	586	580	529
	임시직	717	747	789	808	829	842	785	816	766	753	728
	일용직	858	872	857	1,010	938	983	974	1,046	935	881	855
근속 연수	1년 미만	1,210	1,201	1,242	1,418	1,338	1,453	1,414	1,498	1,361	1,273	1,224
	1~2년 미만	269	216	242	254	265	280	248	286	280	257	216
	2~3년 미만	120	143	108	149	137	144	166	130	146	148	140
	3년 이상	349	347	341	388	397	405	461	513	500	537	532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17	118	131	174	139	165	211	197	214	204	194
성	남 성	53	43	65	83	64	72	104	92	101	81	80
	여 성	64	75	65	92	75	93	107	105	114	123	114
연령	15~29세	38	40	34	56	34	53	56	41	43	42	37
	30~39세	30	37	30	43	36	42	36	36	44	37	42
	40~49세	32	23	30	46	40	39	46	54	48	35	39
	50~59세	10	12	24	19	20	18	40	39	42	50	40
	60세 이상	7	6	12	11	9	13	33	27	37	40	37
학력	중졸 이하	23	19	31	30	22	28	47	39	49	50	40
	고졸 이하	57	59	67	92	70	68	99	102	99	93	96
	전문대졸	17	18	12	28	21	27	30	17	25	28	29
	대졸 이상	19	22	21	23	26	43	34	39	42	33	30
산업	농어업	0	0	1	0	0	0	0	0	0	0	0
	광 업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12	13	15	23	15	16	9	11	12	9	13
	전기 등	0	0	0	0	0	0	0	0	0	1	1
	하수 등	0	0	0	0	1	1	1	0	0	0	0
	건설업	10	4	13	16	11	6	8	6	8	9	5
	도소매	28	30	24	30	22	20	28	31	30	21	24
	운 수	2	1	2	2	3	2	3	5	2	3	1
	숙박음식	4	7	1	8	5	11	8	8	6	9	11
	출판 등	8	12	5	7	14	17	12	16	22	8	4
	금융보험	2	1	2	1	2	0	0	1	2	1	0
	부동산임대	4	3	1	1	1	2	6	3	4	2	3
	전문과학	4	3	4	5	1	3	3	4	2	3	5
	사업서비스	31	34	43	64	51	57	102	81	89	103	101

산업	공공행정	4	2	8	6	5	13	7	4	10	12	4
	교 육	1	2	3	4	3	8	9	4	4	2	2
	보건사회복지	1	2	6	4	3	7	9	20	17	18	16
	예술 및 여가	1	0	0	0	0	0	1	0	0	0	0
	협회, 개인서비스	7	3	1	2	2	3	4	3	7	4	5
	가구내 등	0	1	0	0	0	1	0	0	0	0	0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1	1	0	2	0	0	1	0	1	0	0
	전문가	12	20	15	30	26	39	29	34	41	27	19
	사무직	11	14	7	18	13	18	22	20	19	26	19
	서비스	10	11	14	17	18	19	24	31	36	20	32
	판 매	35	36	31	40	29	26	32	32	37	31	31
	농업숙련	0	0	0	0	0	0	0	1	2	1	0
	기능원 등	20	9	17	15	15	18	19	11	13	9	14
	기계조작 등	7	8	12	14	11	10	19	17	22	24	27
	단순노무직	21	20	33	39	27	36	64	51	45	66	53
규모	1~4인	31	31	29	41	30	37	54	65	55	64	63
	5~9인	19	20	17	24	23	17	32	26	49	33	33
	10~29인	23	24	29	38	32	43	52	50	52	46	44
	30~99인	26	22	29	46	35	38	48	38	35	44	34
	100~299인	12	9	20	15	15	18	16	12	12	12	14
	300인 이상	6	11	6	10	4	12	9	6	11	5	5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	55	61	90	71	98	139	131	131	138	122
	임시직	38	48	50	56	52	58	62	59	76	52	60
	일용직	18	14	20	29	16	9	9	7	8	14	13
근속 연수	1년 미만	56	52	68	82	59	86	102	89	92	89	91
	1~2년 미만	23	18	24	33	28	30	29	36	44	36	32
	2~3년 미만	11	11	9	16	12	9	20	14	19	23	22
	3년 이상	27	36	30	43	40	40	59	58	59	56	49

<부표 10> 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13	431	498	593	641	622	608	672	682	646	604
성	남 성	239	247	269	340	369	343	334	376	371	377	326
	여 성	174	183	229	253	272	279	274	297	310	269	278
연령	15~29세	57	58	55	69	72	69	67	73	68	49	49
	30~39세	53	53	52	68	81	76	63	69	68	61	52
	40~49세	66	79	96	106	103	105	102	116	109	113	81
	50~59세	117	121	141	169	191	175	183	192	200	197	176
	60세 이상	120	119	154	180	195	197	195	223	238	226	246
학력	중졸 이하	215	221	258	284	284	276	256	273	281	265	244
	고졸 이하	159	168	205	247	282	259	258	302	317	283	256
	전문대졸	21	23	21	33	32	43	48	48	39	49	48
	대졸 이상	18	18	15	29	43	45	46	50	45	48	56
산업	농어업	0	0	1	0	1	0	0	0	0	0	2
	광 업	0	0	0	0	0	1	0	0	0	0	0
	제조업	2	3	3	4	4	6	2	3	6	4	4
	전기 등	0	0	0	0	0	0	0	0	0	1	1
	하수 등	0	0	0	1	0	0	0	1	1	1	1
	건설업	13	8	4	9	14	20	10	7	10	15	11
	도소매	0	1	1	2	1	0	6	2	2	2	3
	운 수	4	0	1	2	3	5	2	2	2	3	4
	숙박음식	3	2	5	4	6	10	4	4	4	3	4
	출판 등	1	0	0	1	1	0	1	1	0	1	1
	금융보험	0	0	0	0	0	0	0	0	0	0	0
	부동산임대	7	7	10	7	12	19	19	14	15	10	8
	전문과학	3	2	0	0	1	1	1	0	0	0	1
	사업서비스	374	403	471	557	592	554	552	631	633	598	555

산업	공공행정	1	0	1	0	0	0	0	0	1	0	0
	교 육	0	0	0	1	2	0	1	1	1	0	1
	보건사회복지	0	0	0	1	1	1	4	3	3	4	4
	예술 및 여가	0	0	1	0	0	1	0	1	0	1	0
	협회, 개인서비스	4	1	2	1	2	4	3	0	2	2	3
	가구내 등	0	2	0	1	1	0	0	0	1	0	0
	국 제	0	0	0	0	0	0	1	0	0	0	0
직업	관리자	1	1	3	5	2	5	5	5	3	2	1
	전문가	4	3	5	9	14	6	7	7	10	5	13
	사무직	19	13	18	25	32	36	32	35	35	36	31
	서비스	26	31	33	41	43	43	43	34	49	39	37
	판 매	16	14	12	21	18	26	29	34	29	19	22
	농업숙련	2	2	1	1	1	1	3	3	1	3	1
	기능원 등	31	34	37	48	53	52	51	53	37	33	35
	기계조작 등	41	41	34	43	53	40	51	67	65	82	59
	단순노무직	273	291	355	400	425	414	387	435	453	427	405
규모	1~4인	58	59	86	104	132	108	129	141	166	152	148
	5~9인	90	85	106	121	141	132	139	132	157	132	126
	10~29인	115	129	148	195	208	206	178	216	201	188	178
	30~99인	97	102	102	123	116	133	122	127	112	130	113
	100~299인	36	40	38	38	38	31	27	41	40	35	31
	300인 이상	18	15	18	13	6	12	14	15	6	8	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3	159	207	270	283	342	377	412	441	431	393
	임시직	182	199	207	228	257	215	186	203	185	168	161
	일용직	68	72	84	94	101	65	45	58	56	47	50
근속 연수	1년 미만	204	220	256	285	314	278	271	290	298	254	252
	1~2년 미만	91	67	89	101	123	131	95	138	126	117	100
	2~3년 미만	37	51	42	69	57	73	73	50	66	71	60
	3년 이상	81	93	111	138	148	140	169	195	192	203	192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711	633	617	635	595	637	590	614	545	545	524
성	남 성	308	239	186	214	182	204	193	198	187	185	189
	여 성	403	394	431	421	413	433	397	416	358	360	335
연령	15~29세	156	99	69	68	79	55	46	56	44	33	36
	30~39세	242	232	211	205	189	208	190	162	127	140	125
	40~49세	204	199	206	227	218	239	214	223	213	207	202
	50~59세	75	72	87	95	76	98	108	132	123	124	130
	60세 이상	34	31	43	41	32	38	32	40	38	42	31
학력	중졸 이하	105	95	107	92	55	85	71	70	60	53	45
	고졸 이하	368	319	303	345	331	315	289	313	284	281	275
	전문대졸	73	65	75	59	71	72	76	80	74	68	71
	대졸 이상	165	154	132	139	138	165	154	152	127	144	134
산업	농어업	3	3	1	1	0	4	0	0	0	0	0
	광 업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46	33	27	24	5	11	6	10	4	2	1
	전기 등	1	1	0	1	2	0	0	0	0	0	0
	하수 등	1	3	0	0	1	0	0	0	0	0	0
	건설업	29	14	14	12	1	4	2	2	2	2	0
	도소매	165	152	139	156	169	196	170	177	147	124	104
	운 수	62	43	35	38	16	12	17	19	16	18	28
	숙박음식	27	20	14	9	2	7	3	3	1	3	1
	출판 등	17	7	7	8	10	9	3	3	5	9	8
	금융보험	177	197	221	231	230	225	228	237	229	250	265
	부동산임대	18	17	19	20	14	22	29	29	20	17	10
	전문과학	18	15	7	7	3	1	1	2	4	1	1
	사업서비스	15	15	10	14	20	11	12	8	7	12	9

산업	공공행정	4	5	2	1	2	0	1	0	0	0	0
	교 육	78	69	82	71	67	76	80	76	66	62	56
	보건사회복지	4	1	2	1	1	1	0	0	0	1	0
	예술 및 여가	6	11	8	7	15	10	7	14	8	10	7
	협회, 개인서비스	32	24	21	27	37	43	29	33	35	35	34
	가구내 등	7	4	9	9	0	3	3	0	0	0	0
	국 제	1	1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5	3	1	0	0	0	2	1	1	0	1
	전문가	122	98	112	95	79	93	100	98	78	74	66
	사무직	59	40	17	22	10	16	21	16	14	16	13
	서비스	49	35	23	16	19	22	14	18	11	15	13
	판 매	289	296	293	320	367	366	345	367	347	345	350
	농업숙련	1	2	0	0	0	1	0	0	0	0	0
	기능원 등	33	22	22	13	5	12	9	6	4	6	2
	기계조작 등	72	48	29	49	33	32	25	31	32	31	25
	단순노무직	82	88	119	119	82	95	74	77	58	58	55
규모	1~4인	123	104	136	137	97	104	92	104	95	87	77
	5~9인	98	83	58	66	52	66	47	58	43	56	47
	10~29인	206	175	185	199	209	215	194	209	190	189	186
	30~99인	206	200	185	192	194	204	213	208	189	183	181
	100~299인	58	47	36	29	31	34	33	27	22	20	25
	300인 이상	20	24	16	13	12	14	12	8	7	10	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1	74	18	26	20	11	10	17	12	5	12
	임시직	472	463	478	503	514	548	532	546	490	509	495
	일용직	108	96	121	106	61	78	48	51	43	31	17
근속 연수	1년 미만	311	253	289	286	233	264	191	206	166	147	122
	1~2년 미만	117	109	104	104	99	107	112	95	83	90	71
	2~3년 미만	61	69	49	55	62	54	67	63	56	51	52
	3년 이상	222	202	174	189	202	211	221	250	240	257	278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71	141	175	125	65	99	70	75	69	73	58
성	남 성	23	14	15	24	7	12	5	9	10	6	4
	여 성	147	127	160	100	58	86	65	66	59	67	54
연령	15~29세	22	12	15	8	9	8	4	5	4	2	5
	30~39세	59	42	40	38	21	25	18	30	20	20	13
	40~49세	40	37	52	36	18	31	26	17	18	17	17
	50~59세	21	28	36	25	9	20	8	12	14	20	18
	60세 이상	29	21	32	18	9	16	14	11	13	15	5
학력	중졸 이하	68	54	74	47	21	35	21	20	26	23	16
	고졸 이하	78	69	78	53	32	51	36	40	30	36	32
	전문대졸	14	5	11	8	5	4	5	6	7	4	5
	대졸 이상	12	12	13	16	7	8	8	8	5	10	4
산업	농어업	1	1	1	1	1	1	0	0	0	0	0
	광 업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96	67	73	83	47	42	50	56	40	36	39
	전기 등	2	0	0	0	0	0	0	0	0	0	0
	하수 등	0	0	0	0	0	0	0	0	0	0	0
	건설업	1	2	1	4	0	1	1	1	2	1	0
	도소매	16	16	18	9	6	10	3	7	5	3	2
	운 수	1	1	0	0	0	1	0	0	0	1	0
	숙박음식	3	1	2	3	1	2	0	0	1	0	1
	출판 등	4	2	3	10	5	2	4	0	2	4	3
	금융보험	2	3	0	0	0	0	0	0	0	1	0
	부동산임대	0	0	1	4	1	1	1	0	0	0	0
	전문과학	2	1	0	1	2	2	2	2	2	3	2
	사업서비스	2	1	4	1	0	1	5	0	2	3	1

산업	공공행정	6	1	0	1	0	2	0	0	0	0	0
	교 육	5	8	13	1	0	2	2	4	3	1	2
	보건사회복지	2	1	0	0	0	4	1	1	3	6	2
	예술 및 여가	0	0	0	0	0	0	0	0	0	0	0
	협회, 개인서비스	8	3	8	4	2	7	0	1	1	1	2
	가구내 등	20	33	51	2	1	20	1	3	6	13	4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0	0	0	0	0	1	0	0	0	0	0
	전문가	8	11	16	14	4	6	5	7	7	4	3
	사무직	16	3	4	4	5	3	5	2	3	6	2
	서비스	3	3	5	1	2	8	2	1	5	6	0
	판 매	4	7	5	4	1	2	0	1	1	0	1
	농업숙련	0	0	0	0	0	0	0	0	0	0	0
	기능원 등	20	9	15	11	3	5	4	3	5	5	3
	기계조작 등	7	3	4	4	2	5	3	5	4	7	2
	단순노무직	112	103	127	86	49	70	50	55	44	46	46
규모	1~4인	120	104	144	95	51	79	53	57	59	59	48
	5~9인	9	9	8	13	7	4	6	8	4	6	3
	10~29인	21	15	11	13	4	10	7	4	4	3	2
	30~99인	9	11	9	2	2	4	3	3	2	5	3
	100~299인	4	2	3	1	0	2	1	2	0	0	0
	300인 이상	7	1	1	2	2	0	0	2	0	0	1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3	2	4	0	6	3	5	3	6	3
	임시직	29	44	70	29	11	26	7	12	19	25	14
	일용직	121	93	103	92	54	67	60	58	47	42	41
근속 연수	1년 미만	122	102	119	92	48	78	55	58	49	43	35
	1~2년 미만	24	20	25	14	7	8	8	10	7	11	8
	2~3년 미만	9	7	9	6	4	4	1	1	4	2	5
	3년 이상	16	12	22	13	6	9	6	6	9	17	9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666	718	667	845	818	883	870	962	871	821	805
성	남 성	395	466	437	554	563	574	606	626	582	574	557
	여 성	271	252	230	291	255	308	263	336	289	247	248
연령	15~29세	85	90	65	75	55	61	47	53	64	58	57
	30~39세	146	144	131	141	136	121	98	110	83	81	77
	40~49세	206	234	225	268	260	296	258	274	237	210	191
	50~59세	127	157	156	231	241	263	309	326	296	292	290
	60세 이상	102	94	90	130	126	141	159	199	191	181	191
학력	중졸 이하	338	352	328	427	397	424	430	474	418	368	355
	고졸 이하	291	327	303	375	381	397	380	421	397	390	390
	전문대졸	18	23	23	24	17	40	38	36	25	37	36
	대졸 이상	19	16	13	19	22	22	23	32	31	25	23
산업	농어업	40	45	39	53	46	70	64	86	64	50	46
	광 업	0	0	1	1	1	1	1	0	0	0	0
	제조업	87	58	65	69	61	65	47	76	54	42	39
	전기 등	0	0	0	0	0	0	0	0	1	0	0
	하수 등	0	2	1	0	1	0	0	1	0	1	2
	건설업	312	367	335	433	450	484	514	498	474	479	445
	도소매	39	44	34	46	44	42	39	43	48	46	36
	운 수	13	10	14	16	21	17	14	17	16	17	19
	숙박음식	57	71	66	76	48	62	58	77	66	57	73
	출판 등	1	3	2	3	4	2	1	1	0	1	0
	금융보험	1	0	1	1	1	1	2	2	0	1	0
	부동산임대	4	1	3	1	1	5	1	3	3	1	1
	전문과학	3	5	4	8	2	3	6	5	4	2	5
	사업서비스	42	45	48	66	67	41	43	58	48	42	56

산업	공공행정	6	5	2	5	4	2	2	2	2	2	1
	교 육	5	2	2	2	1	3	2	1	4	1	3
	보건사회복지	1	5	2	2	2	6	7	5	4	6	4
	예술 및 여가	9	11	6	6	7	4	4	10	13	9	5
	협회, 개인서비스	19	18	17	17	26	31	27	36	36	31	51
	가구내 등	28	25	24	41	31	44	39	41	35	35	19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가	7	2	2	10	7	4	4	5	3	3	1
	사무직	4	7	5	7	4	1	3	3	6	3	7
	서비스	67	72	58	69	54	65	54	70	67	54	66
	판 매	24	23	18	24	16	17	15	17	22	18	18
	농업숙련	10	12	8	16	6	9	14	12	10	5	5
	기능원 등	217	237	227	282	310	331	317	323	300	303	291
	기계조작 등	16	20	26	28	29	20	19	30	26	25	22
	단순노무직	320	345	322	411	391	436	443	502	437	411	394
규모	1~4인	286	318	288	389	338	380	398	435	414	408	403
	5~9인	189	214	188	245	272	287	275	323	279	258	239
	10~29인	140	134	133	161	166	164	152	166	143	119	128
	30~99인	36	39	47	38	39	42	35	26	30	22	31
	100~299인	10	10	8	8	2	10	9	10	5	9	3
	300인 이상	5	3	3	4	1	0	1	3	0	4	1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	0	0	0	0	0	0	0	0
	임시직	1	4	0	3	0	0	0	0	0	0	0
	일용직	665	713	667	843	818	883	870	962	871	821	805
근속 연수	1년 미만	637	689	648	822	793	866	852	945	837	810	795
	1~2년 미만	21	14	7	7	13	7	5	10	29	3	5
	2~3년 미만	2	7	2	4	4	3	6	3	3	2	0
	3년 이상	6	8	10	11	9	6	7	4	2	6	5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성	남 성	278	309	345	359	372	369	427	470	506	526	587
	여 성	794	736	790	843	857	1,058	1,194	1,232	1,320	1,357	1,445
연령	15~29세	300	320	307	347	329	369	418	439	489	495	569
	30~39세	266	238	267	236	237	243	264	256	233	244	245
	40~49세	243	222	245	249	265	338	336	336	337	334	335
	50~59세	133	132	140	172	178	197	241	282	307	311	305
	60세 이상	130	133	176	198	220	279	361	389	461	499	578
학력	중졸 이하	331	325	355	378	389	442	512	538	579	565	595
	고졸 이하	514	504	523	571	596	683	734	782	838	868	928
	전문대졸	57	59	76	77	56	81	104	113	128	142	144
	대졸 이상	169	157	180	176	188	220	270	269	282	308	364
산업	농어업	24	32	25	26	28	21	29	24	22	19	20
	광 업	0	0	0	1	0	0	1	0	0	0	0
	제조업	108	93	93	85	85	99	94	77	74	83	88
	전기 등	2	1	0	1	1	0	0	2	2	3	2
	하수 등	1	1	1	1	0	0	3	0	2	5	1
	건설업	95	80	93	82	72	82	85	84	80	78	75
	도소매	178	162	178	194	200	237	261	274	320	285	289
	운 수	16	18	21	22	20	20	22	17	20	27	24
	숙박음식	177	195	183	209	195	226	254	258	284	332	377
	출판 등	16	13	12	16	13	12	12	13	20	29	22
	금융보험	18	14	23	14	12	11	12	21	19	23	20
	부동산임대	20	20	20	22	21	18	23	30	26	33	31
	전문과학	13	12	13	12	13	10	11	21	14	21	19
	사업서비스	34	40	36	42	58	56	67	84	101	82	92

산업	공공행정	63	56	86	94	93	131	152	141	166	173	171
	교 육	172	170	194	179	195	233	251	251	253	259	299
	보건사회복지	18	22	31	49	51	106	177	201	209	234	299
	예술 및 여가	20	34	32	37	47	42	42	58	59	55	54
	협회, 개인서비스	50	37	54	53	72	64	63	87	89	81	122
	가구내 등	45	46	38	63	52	59	62	60	65	62	28
	국 제	1	0	0	0	0	2	0	1	0	0	0
직업	관리자	1	1	1	2	2	2	3	3	2	5	2
	전문가	188	182	207	203	233	247	296	328	309	333	364
	사무직	88	81	99	100	93	94	120	124	149	161	169
	서비스	184	187	183	212	216	269	289	322	365	369	397
	판 매	130	110	130	140	132	179	202	207	258	237	242
	농업숙련	5	11	8	8	2	3	5	2	5	1	3
	기능원 등	76	61	76	58	59	64	61	52	46	53	50
	기계조작 등	27	29	36	30	35	31	27	26	20	33	37
	단순노무직	375	382	395	449	456	537	618	639	672	692	767
규모	1~4인	493	496	526	574	546	614	687	739	795	819	845
	5~9인	220	210	225	244	263	291	335	337	395	420	466
	10~29인	190	183	207	201	234	284	322	349	354	349	392
	30~99인	100	95	107	115	115	149	180	175	181	195	200
	100~299인	34	28	36	38	35	49	42	46	54	47	49
	300인 이상	36	34	33	30	35	39	54	56	48	52	8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	16	17	18	22	51	82	134	141	174	194
	임시직	453	432	533	582	578	750	943	986	1,094	1,163	1,300
	일용직	599	596	586	602	629	625	595	582	591	547	538
근속 연수	1년 미만	801	811	843	912	925	1,087	1,194	1,202	1,260	1,288	1,386
	1~2년 미만	137	107	134	138	148	156	193	211	215	224	246
	2~3년 미만	51	47	55	61	53	60	82	86	114	102	119
	3년 이상	83	78	103	92	104	123	151	203	237	270	282

<부표 1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단위 : 천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542.3	1,593.3	1,655.8	1,745.5	1,846.2	1,852.0	1,948.9	2,032.2	2,104.1	2,181.4	2,231.2
정규직	1,771.4	1,845.7	1,908.2	2,008.5	2,127.3	2,200.9	2,294.4	2,388.3	2,459.6	2,545.5	2,603.6
비정규직	1,151.8	1,156.4	1,198.2	1,276.0	1,295.9	1,201.8	1,258.3	1,348.1	1,393.1	1,428.3	1,452.9
한시적 근로	1,231.7	1,240.3	1,313.0	1,440.3	1,457.8	1,301.0	1,400.1	1,502.0	1,567.2	1,601.8	1,614.1
기간제	1,187.4	1,258.2	1,292.6	1,418.8	1,489.4	1,311.4	1,360.0	1,463.1	1,545.2	1,580.6	1,583.4
반복갱신	1,704.3	1,692.3	1,774.1	1,949.0	1,853.6	1,930.7	2,263.3	2,201.7	2,146.8	2,413.6	2,227.7
기대불가	920.0	924.0	951.0	944.7	1,052.0	1,039.4	1,060.5	1,195.6	1,296.9	1,233.6	1,287.0
비전형 근로	1,067.5	1,080.6	1,045.8	1,111.9	1,197.0	1,190.9	1,249.0	1,321.1	1,382.3	1,411.8	1,514.8
파견	1,271.5	1,316.0	1,260.8	1,341.3	1,473.2	1,414.4	1,410.2	1,523.5	1,619.6	1,498.7	1,527.0
용역	922.4	948.1	932.9	1,023.5	1,083.3	1,110.9	1,174.9	1,224.4	1,263.7	1,353.7	1,382.8
특수형태	1,390.5	1,422.4	1,321.9	1,421.8	1,553.4	1,529.1	1,629.5	1,791.5	1,813.0	1,800.9	2,071.8
가정 내	563.7	566.8	596.4	568.4	486.5	600.4	435.3	519.9	663.2	607.3	603.4
일일근로	836.6	859.5	872.9	891.8	983.4	953.0	1,040.2	1,054.8	1,151.5	1,211.0	1,274.1
시간제	539.0	522.3	550.6	560.9	573.8	535.2	564.6	604.2	607.5	654.0	66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발행연월일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이 인 재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 ·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4

정가 5,000원

ISBN 978-89-7356-068-4